

INVITATION
TO THE
ARTS

MARCH

예술계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03 vol.303

Cover Story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반갑습니다

'마티네 웰빙콘서트' 해설자로 부산시민과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세계의 공연장

독일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
엘베필하모니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베토벤 압드라이모프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2017^{년도}_{2분기}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특 강 ^{new}

2017. 3. 4 (토)

- 사진학 :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강의I
10:30~12:30, 국제회의장, 수강료 10,000원
- 미술사 : 화가들이 그린 음악가의 초상-모차르트
14:00~16:00, 국제회의장, 수강료 10,000원

2017. 3. 11 (토)

- 사진학 :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강의II
10:30~12:30, 국제회의장, 수강료 10,000원
- 미술사 : 모더니즘 회화의 빅매치-마티스 vs 피카소
14:00~16:00, 국제회의장, 수강료 10,000원

정규강좌

강좌명	기 간	횟수	시 간	장 소	정원(명)	수강료	
클라리넷	A	4. 5~6. 14 (수)	10	17:30~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B	4. 5~6. 14 (수)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가야금	A	4. 4~6. 20 (화)	10	17:30~19: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B	4. 4~6. 20 (화)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40,000원
해 금	초급	4. 6~6. 8 (목)	10	17:30~19: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중급	4. 6~6. 8 (목)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클래식기타	초급	4. 7~6. 16 (금)	10	14:00~15: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중급	4. 7~6. 16 (금)	10	16:00~17: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new} 요가와 한국춤	원향지무	4. 4~6. 20 (화)	10	18:00~19: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산조춤	4. 4~6. 20 (화)	10	20:00~21:40	무용단 연습실	25	100,000원
사물놀이	4. 6~6. 8 (목)	10	19:00~20:30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12	120,000원	
바이올린 ^{new}	4. 3~6. 12 (월)	10	19:30~21: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플루트 ^{new}	4. 6~6. 8 (목)	10	15:30~17:00	컨퍼런스홀	12	120,000원	
아티스틱 판타스틱 미술사 ^{new}	4. 8~6. 10 (토)	10	14:00~16:00	컨퍼런스홀	30	120,000원	
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강의 ^{new}	4. 8~6. 10 (토)	10	10:30~12:30	컨퍼런스홀	15	120,000원	

수강신청

기 간

▶ 특 강 : 2. 13 (월) 부터 / 정규강좌 : 3. 13 (월) 부터 선착순 마감

방 법

- ▶ 온라인 :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 2분기)
- ▶ 전 화 : 전시교육팀 (☎ 051-607-6061~3)
- ▶ 방문처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재)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전시교육팀

L'Orchestra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시벨리우스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中 '녹턴'
 거슈인 피아노 협주곡 F장조
 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 미코 프랑크



피아노 / 손예은

2017.5.20 SAT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회  부산문화회관 | 부산일보사 후 원 Amundi

입장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의 및 예매 051)607-6000 | www.bscc.or.kr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가능



최정원



이건명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0주년

MUSICAL GALA SHOW

뮤지컬 갈라쇼

2017. 3. 10. Fri PM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 Suna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아트레볼루션 출연 | 최정원, 이건명, 아트레볼루션 문의 | 051)749-7651 관람연령 | 만7세이상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티켓 | VIP 40,000원 R석 30,000원 A석 20,000원(2석) 할인 | 누림회원 30% / 단체 30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창작뮤지컬

같은 하늘 같은 공간에서 인간은 어찌 이리도 다른 삶을 살겠끔 정해진 것인가

“같은 하늘 같은 공간에서 인간은 어찌 이리도
다른 삶을 살겠끔 정해진 것인가”

2017. 3. 23 | 목 | - 3. 25 | 토 |

2017. 3. 29 | 수 | - 4. 1 | 토 |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

Time 평일 19시30분
3.25. 토 | 15시 / 19시30분
4. 1. 토 | 17시



객원지휘
리신차오



첼로
이일세

리신차오 &

2017 Cellist 시리즈 I

이일세



예술감독 김원명



작곡 김지만

김지만 'And Life Goes On' for Orchestra
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Dvorak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yarts.or.k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저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인간과 예술을 향한 끝없는 탐구

한국이 사랑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 건 우

피아노 리사이틀

2017 백건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 프로젝트 in 부산

PROGRAM

Ludwig v. Beethoven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Op. 2-3
피아노 소나타 5번 c단조, Op. 10-1
피아노 소나타 12번 Ab장조, Op. 26
피아노 소나타 14번 c#단조, Op. 27-2 "월광"

2017. 4. 14 금
19: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60,000원(회원가 50,000원) / S석 50,000원(회원가 40,000원) | 예매 | 인터파크 및 전화 예매 | 문의 | 051-419-5571~4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2017.3.10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
리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
드보르흐 교향곡 제8번 4악장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차이코프스키 환상서곡 「로미오 줄리엣」

주 회  부산문화회관
문 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 매 www.bscc.or.kr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예체능동호회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명) ▶ 전화문의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전차하남역 5번출구 유영교로 방면 100m "7번가 피막" 앞 - 부산문화회관 · 운행시간: 월~금 19:00 (공연하는 날에 한정)



CONTENTS

CULTURAL STORY



- 10 **커버스토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백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 12 **3월 공연 캘린더**

- 14 **반갑습니다**
'마티네 웰빙콘서트' 해설자로 부산시민과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



- 16 **세계의 공연장**
독일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
엘베필하모니

- 20 **축제 속으로**
Hanwha와 함께하는 2017 교향악축제

BOARDS INSIDE



- 28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48 **새로 나온 음반**

- 49 **새로 나온 책**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7년 3월호 통권 30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2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무대가 주목하는
강렬한 타건과 화려한 기교의 피아니스트



벅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3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설적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를 떠올리는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벅조드 압드라이모프가 한국 최초로 부산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지난 2009년 18세의 나이로 런던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며 세계 음악계에 등장한 벅조드 압드라이모프는 강렬한 타건과 화려한 기교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권위있는 일간지들로부터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젊은 연주자'로 지목되면서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이다. 1990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출생한 압드라이모프는 5살 때 피아노를 시작, 타슈켄트의 우스펜스키 주립음악원에서 타마라 포포비치(Tamara Popovich)를 사사한 후 이탈리아 꼬모피아노아카데미에 수학했으며 밴 클라이번 콩쿠르 금메달리스트인 스타니스슬라프 유데니치(Stanislav Ioudenitch)를 사사하고 현재 미국 파크대학 아티스트 레지던스로 임명되었다.



뉴욕타임즈로부터 '유려한 손동작, 빠르고 돋보이는 격렬함'이라는 찬사를 받은 압드라이모프는 데뷔한 후 그동안 LA필 하모니, 보스턴 필하모니, NHK심포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는 물론 세계적인 거장 발레리 게르기예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만프레트 호네크, 키릴 페트렌코, 제임스 개피건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이자 세계적인 클래식 페스티벌인 'BBC 프롬스'와 스위스 베르비에(Verbier) 페스티벌 데뷔무대를 가진 바 있는 압드라이모프는 올해 부산과 서울에서의 두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일본 요미우리 니폰심포니, 중국 북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아시아 투어에 이어 유럽과 호주에서의 초청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압드라이모프는 지난 2012년 데카 데뷔음반에 이어 2014년 프로코피에프 협주곡 제3번과 차이콥스키 협주곡 제1번을 수록한 그의 두 번째 음반으로 프랑스 쇼크 드 클라시카, 디아파종 등 각종 권위있는 음반상을 휩쓸기도 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압드라이모프의 파워풀한 타건이 돋보이는 베토벤의 걸작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열정'과 20세기 피아니즘을 대표하는 프로코피에프의 대표곡 '피아노 소나타 제6번'을 비롯해 바흐의 '시칠리아노', '토카타와 푸가 BWV 565',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을 들려준다. 첫 곡인 바흐의 '시칠리아노'는 바이마르의 궁정 오르간 주자로 일하며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던 바흐가 당시 비발디의 '합주 협주곡 RV565'를 편곡한 '독주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 제5번 중 세 번째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초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알프레드 코르토가 낭만적으로 편곡한 피아노 버전의 곡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BWV 565' 역시 바흐의 작품으로, 그의 바이마르 시대(1710년~1717년)에 작곡된 바흐의 초기작 중 하나이다. 이번 무대에서 압드라이모프는 기존 오르간곡을 피아노곡에 어울리게끔 수정한 부조니 편곡판을 들려준다.

6개의 짧은 피아노 소품들로 이루어진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은 멘델스존, 슈만, 쇼팽, 브람스 등 이후 많은 19세기 독일 작곡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시칠리 풍의 장조와 단조 주제가 서로 정겹게 대화를 하듯 친근하면서도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두 번째 곡 '안단티노'와 단조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흥겨움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 번째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연주한다. 베토벤의 '중기시대'를 여는 걸작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바단조 작품 57'은 우리에게는 부제인 '열정'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 불꽃같은 걱정과 불굴의 기백이 돋보이는 피아노 소나타의 역작이다.

마지막 무대로는 난곡 중에서도 난곡이라 평가받는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소나타 제6번'이 장식한다. 작곡가이기에 앞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프로코피에프는 모두 9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작곡된 6번과 7번, 8번을 '전쟁 3부작'라 부른다. 유명한 1악장부터 이미 전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 제6번'은 전통과 혁신을 강조한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각 악장마다 소나타 형식에서 필요한 적절한 주제가 확실한 대비를 이루면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통일감을 보여준다.

EVENT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거장'

벅조드 압드라이모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 신규 VIP회원 초대권 2매 증정(선착순 50명)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한국 최초로 부산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갖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벅조드 압드라이모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중 VIP회원에 가입하시는 분께는 초대권 2매(선착순 50명), 스페셜 회원에 가입하는 분께는 초대권 1매(선착순 100명)를 제공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피아니스트 벅조드 압드라이모프의 화려한 무대도 감상하시고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서의 특별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5)

SUN

MON

TUE

3

2017 MARCH

5	6	7
<p>전시실</p> <p>수석 5개단체 연합전 - 대전시실 3월 11일(토) - 3월 12일(일) 문의 : 서희주(010-7464-3505)</p>		
12	13	14
<p>소 제7회 노경희 클래스 음악이야기 15:00 무료/노경희(010-4599-0423)</p>		<p>소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앨범발매 기념 리사이틀 20:00 전석 2만원(대학생까지 50% 할인) 클래시 라운지(02-707-1550)</p> <p>국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강의 White Day Talk Concert '부산의 문화 이야기로 풀다'-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좋은만남 600회 특집- 19:30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61~3)</p>
19	20	21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텀' 14:00, 18:30 14만원 · 13만원 · 12만원 · 9만원 · 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인의 사랑 그리고 봄의 노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26	27	28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1	2	3	4
<p>소 이은실 제자 음악회 '현을 타고 봄이 오는 소리' 19:00 무료/이은실(010-2782-1525)</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부산국악원 2017 신춘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대 제6회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강규(010-4183-2293)</p> <p>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8	9	10	11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대 1타2피 콘서트 '경남필하모닉 청소년 관현악단&C.I Wind Orchestra' 17:00 무료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현악단(010-4901-2141)</p> <p>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15	16	17	18
<p>소 노선경 귀국 작곡 발표회 19:30 노선경(010-4855-5217)</p>	<p>소 부산낭만빅밴드 창단연주회 19:30 초대/부산낭만빅밴드(010-8503-7903)</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텀' 14:00, 18:30 14만원·13만원·12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2	23	24	25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백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19:30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나비아 청산가자'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베르디' 11:00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29	30	31	4/1
<p>대 오페라 부산 심포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7회 정기연주회 '만프레드'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11:00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대 소프라노 김성은 & 바리톤 고성현 듀오 콘서트 17:00 7만원·5만원·4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p>

‘마티네 월빙콘서트’ 해설자로 부산시민과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

14

2017년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부산문화회관이 새롭게 마련하는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월빙콘서트’가 3월 24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올 한해 8차례 관객들과 만난다. ‘마티네 월빙콘서트’는 그동안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진행해온 ‘해설이 있는 월빙콘서트’를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탄생시킨 무대로, 특히 올해 상반기 무대에서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 씨가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행복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그동안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 부산 관객과는 만날 기회가 적어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시작되는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시리즈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강퇴뿐 아니라 연주자로서도 자주 부산을 찾고 싶습니다.”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

범 씨는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명강사, 한국 100인의 강사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해설음악회의 명강사로 유명하다. 특히 방영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예당아트TV의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은 클래식 애호가나 전공자들은 물론, 클래식 음악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까지 그의 팬이 되었을 정도로 당시 음악계에 많은 화제를 낳았다.

“연주자로 무대에 서다 보니 무엇보다도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느꼈다”는 조운범 씨. 관객과의 소통 부재가 결국 클래식 음악이라 하면 마니아나 즐겨 듣는, 잘못된 편견을 자리잡게 했다는 그는 멀어진 클래식 음악과 대중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해설자로 직접 나섰다. 그는 연주자로서 평소 느꼈던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해설이 아닌 조운범만의 쉬우면서도 깊이있는 해설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66 오페라는 한번 접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예술장르입니다. 99
 그런 만큼 단단히 빠질 각오로 공연장을 찾아주셨음 합니다.



작곡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보통사람’처럼 생생하게 풀어가는 그의 강의는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렸다. 이번에 조윤범 씨가 진행하는 상반기 ‘마티네 웰빙 콘서트’는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4차례 진행된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되는 3월 24일 ‘오페라의 제왕’ 베르디에 이어 4월 바그너(4월 28일), 5월 푸치니(5월 31일), 6월 R. 슈트라우스(6월 30일) 편이 이어진다.

어려서부터 다재다능하고 싶다는 마음에 스스로 붙인 ‘클래식 음악계의 괴물’이라는 별칭이 이제는 조윤범 씨를 가리키는 하나의 수식어가 되었다. ‘괴물’이라는 별칭처럼 그는 다재다능한 재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해설음악회를 통해 알려진 뛰어난 언변이야 두 말할 필요가 없고 베스트셀러에도 이름을 올렸던 세 권의 저서를 비롯해 한국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지면에 칼럼을 연재했으며, 라디오 DJ, TV 진행자로도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영화, 역사, 철학에도 능통한 그는 한편으로는 록음악을 들으며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열광하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여러 분야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음악에 대한 공통점을 빼

고는 저마다 관심분야가 다른 관객들과 마주보고 해설을 하는 데 큰 빛을 발한다.

조윤범 씨 하면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를 빼놓을 수 없다. 독주와 관현악의 매력을 모두 지녔음에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악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창단한 콰르텟엑스는 그동안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콰르텟엑스는 현재 서울에서 시즌제 연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2016-2017 시즌제를 통해 현재 모차르트(23곡)와 쇼스타코비치(15곡)의 현악4중주 전곡 연주에 도전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은 앞으로도 관객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페라는 한번 접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예술장르입니다. 그런 만큼 단단히 빠질 각오로 공연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들려줄 오페라 이야기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독일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 엘베필하모니

16

E L B P H I L H A R M O N I E



엘베필하모니 전경 ©Iwan Baan

우리에게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에 있는 독일 제2의 도시이자 항구도시이며, 지금의 축구선수 손흥민을 키워낸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함부르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유럽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북독일방송교향악단(Sinfonieorchester des Norddeutschen Rundfunks, NDR Sinfonieorchester)의 도시이자, 독일 최초로 상설 오페라하우스가 세워진 도시이며, 작곡가 브람스와 멘델스존이 태어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지난 1월, 함부르크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슈파이셔슈타트(Speicherstadt) 지역의 오래된 벽돌 창고 카이슈파이어 A(Kaispeicher A) 위에 눈부신 유리 건물이 올라섰다. 1960년대 차와 담배, 카카오를 저장하던 창고는 2017년 공연장, 호텔, 레스토랑 등을 갖춘 완벽히 현대적인 문화시설인 '엘베필하모니(Elbphilharmonie)'로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함부르크 하펜시타에는 '한국길'과 '부산교'가 있을 정도로 부산과는 특별한 우정이 있는 도시이다. 그런만큼 함부르크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와 개막행사를 찾았다. 이번 개막행사에는 우리 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찾아온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모두 한 마음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의 건축물이자, 기능적으로 완벽한 공연장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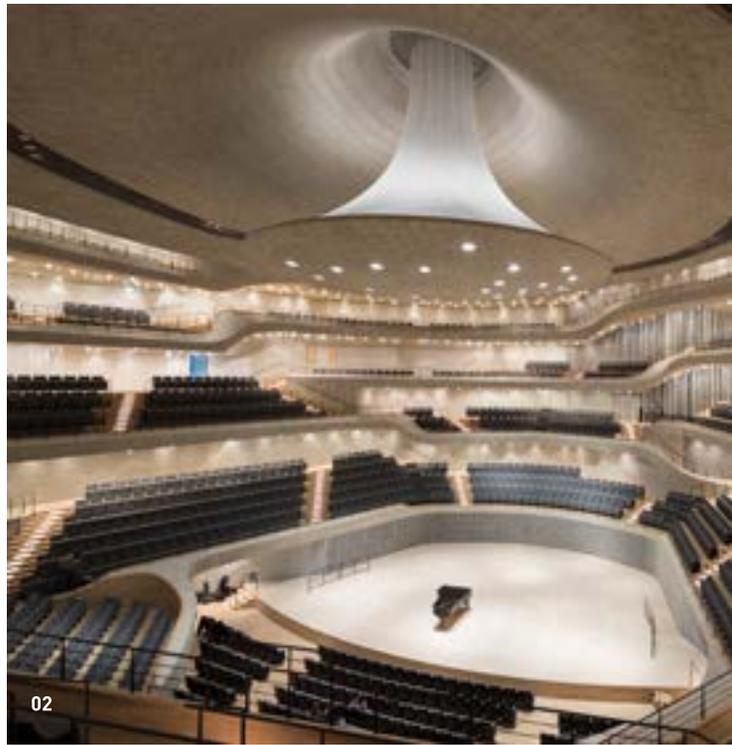
엘베필하모니의 탄생은 순탄치 않았다. 2007년 4월에 시작한 공사는 자그마치 10년이 걸렸다. 개막행사에 참석한 올라프 솔츠(Olaf Scholz) 함부르크 제1시장은 함부르크 시청을 완공하는 데 9년이 걸렸는데, 이 건물을 짓는 데 10년이 걸렸다면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50년이 넘는 창고는 외벽만 남겨놓고 완전히 철거됐다. 하지만 이 낡고 오래된 건물이 20만 톤이 넘는 엘베필하모니를 지탱하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꼬박 3년에 걸쳐 강화작업이 진행되었고 외벽과 유리, 극장 내부공사까지 끝내는 데는 4~5년의 시간이 더 소요됐다. 완공일이 늦어질수록 예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린 엘베필하모니를 눈앞에서 만나본 순간, 그들의 1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된 벽돌 건물 위에 놓여진 빛나는 유리배 한 척을 보는 듯한 극장의 외관과 항구 쪽으로 놓여있는 3대의 기증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증기 주변에 흩어져있던 장비상자 덕에 잠시 고층의 극장에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극장관계자로부터 항구의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정체성을 기억하고자 설치된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어찌되었든 재치 있는 방식으로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01



02

- 01 대극장 내 파이프오르간 ©Maxim Schulz
- 02 대극장 ©Iwan Baan
- 03 플라자

수많은 원형 반짝이로 둘러싸인 82미터의 길고 긴 에스컬레이터 '튜브(Tube)'를 타고 한참(공식적으로는 약 2분 30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을 올라가면 과거(카이슈파이어 A)와 현재(엘베필하모니 홀)가 만나는 장소인 '플라자(Plaza)'에 도착한다. 함부르크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에서는 항구와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공연장과 호텔의 로비이기도 한 이곳은 아래로는 붉은 벽돌이, 위로는 유리 천장이 만나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2유로만 내면 이곳에서 함부르크의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엘베필하모니는 두 개의 공연장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스튜디오, 약 25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45개의 주거용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이다. 극장관계자는 필연적으로 조용할 수 없는 공연장과 휴식공간이 공존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호텔과 주거 공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호텔에서 묵었던 방문객들이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숙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듯 했다.

2,100석 규모의 대극장에 들어서자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약 1만 개의 하얀 석고 판넬로 덮여있는 벽체와 천장, 4,765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파이프 오르간까지 갖춘 대극장은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나무 판넬과 붉은 객석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얀 판넬과 회색 객석, 그리고 마치 하나의 폭포수처럼 보이는 파이프 오르간과 선체의 조명을 연상시키는 듯한 객석 조명등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주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03

모든 객석과 객석은 연결되어 있어 객석 위치와 등급에 상관없이 극장 내에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극장관계자는 ‘민주적인(democratic)’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객석 시스템을 설명했다. 함부르크의 자랑인 북독일방송교향악단은 엘베필하모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NDR 엘베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수한 예술단체, 그리고 공연장의 만남이 더욱 기대가 된다.

550석 규모의 다목적 극장인 리사이틀홀은 굴곡이 있는 나무 판넬로 대극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기본적으로 실내악 공연이 주를 이루겠지만, 가변형 객석을 통해 극장의 기능을 다양화시켰다. 시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악앙상블 ‘앙상블 레조난츠(Ensemble Resonanz)’가 상주단체로 선정되면서 엘베필하모니에 젊고 실험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개의 극장 모두 일본 산토리홀과 미국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우리나라의 롯데홀 등을 설계한 일본의 유명 음향 엔지니어인 야스히사 도요타(Yasuhisa Toyota)가 설계했는데, 개막공연이었던 리카르토 무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 ‘엘베필하모니가 얼마나 완벽한 음향을 구현해냈는지’, 그리고 ‘원형 구조의 객석에서 과연 음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모두를 위한 집(A House for Everyone)’을 미션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리허설 등을 위한 7개의 스튜디오인 카이스튜디오(Kaistudios)와 체험형 악기 전시회인 ‘Elbphilharmonie World of Instruments’ 등 지역의 학생들과 일반 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함부르크를 방문한 짧은 기간 동안 만난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엘베필하모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정식 개관행사가 있었던 1월 14일 이후의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은 단연 엘베필하모니의 개관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축하와 찬사였으며, 함부르크시와 극장의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어찌면 이미, 혹은 수년 내에 문화의 도시 함부르크의 상징이 될 엘베필하모니는 이처럼 수년의 시간과 예산을 기꺼이 인내한 문화예술에 대한 모두의 애정과 열망이 이루어낸 눈부신 결과물이 아닐까.



예술의전당 사진제공

Hanwha와 함께하는 2017 교향악축제



매년 4월이면 찾아오는 클래식 향연 'Hanwha와 함께하는 2017 교향악축제'가 4월 1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악회로 자리잡아온 '교향악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는 한화그룹이 함께하면서 더욱 풍성하면서도 화려한 교향악단의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클래식을 통해 지역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개, 국내 음악계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클래식축재인 '교향악축제'는 해마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중견 연주자부터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연주자들이 참여, 클래식의 대중화에도 적극 기여하면서 그동안 교향악축제를 즐기고 간 누적 관객만 38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Hanwha와 함께하는 2017 교향악축제'는 4월 1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춘천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주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전국 19개 교향악단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압 판 즈베덴(Jaap van Zweden)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닝펑(Ning Feng)의 협연으로 교향악축제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즈베덴이 2018년부터 뉴욕필하모닉의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이번 무대는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즈베덴을 함께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축제인 만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과 클래식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감동을 선사한다.

매년 교향악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4일 세 번째 주자로 무대에 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음악 프



부산시립교향악단(2015 교향악축제)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C)Simon Jay Price
(예술의전당 사진제공)

- 4월 1일(토)~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16일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 문의 : 싹티켓(02-580-1300), 인터파크(1544-1555)

로그래밍 '엘 시스템'의 뛰어난 영재들 중 한 명으로 음악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고메스가 객원지휘하고 섬세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연주로 사랑받는 경희대학교 정준수 교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표제 교향곡 '만프레드'를 비롯해 브람스, 멘델스존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교향악축제에 참가하기 앞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3월 31일 제527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같은 프로그램으로 부산관객과 미리 만난다.

● 2017 교향악축제 일정

- 1일(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임현정, 피아노/김디솔)
- 2일(일) 춘천시립교향악단(지휘/이종진, 오보에/이윤정)
- 4일(화)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마누엘 로페스-고메스, 바이올린/정준수)
- 5일(수) 수원시립교향악단(지휘/김대진, 피아노/루카스 본드라첵)
- 6일(목) 대전시립교향악단(지휘/제임스 저드, 피아노/김원)
- 7일(금)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김홍재, 첼로/주연선)
- 8일(토) KBS교향악단(지휘/요엘 레비, 바이올린/김보소리)
- 9일(일) 인천시립교향악단(지휘/정치용, 호른/김홍박)
- 11일(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장윤성, 바리톤/김기훈)
- 12일(수)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성기선, 피아노/김정원)
- 13일(목) 대구시립교향악단(지휘/줄리안 코바체프, 소프라노/이명주)
- 14일(금) 원주시립교향악단(지휘/김광현, 피아노/선우예민)
- 15일(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성시연, 첼로/강승민)
- 16일(일)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앙 판 즈베덴, 바이올린/닝 팡)
- 18일(화) 전주시립교향악단(지휘/최희준, 피아노/김규연)
- 19일(수) 창원시립교향악단(지휘/박태영, 플루트/이소영)
- 20일(목)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티에리 피셔, 바이올린/크리스텔 리)
- 21일(금)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지휘/정인혁, 더블베이스/성민제)
- 22일(토) 공주시충남교향악단(지휘/윤승업, 바이올린/김현아, 첼로/김우진)
- 23일(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박영민, 피아노/손민수)



4월 14일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봄 여행

하루 2회 모세의 기석이 일어나는 비토섬 갯벌과 사천의 명물 다래 와인갤러리, 벚꽃으로 유명한 선진리성 등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으로 떠나는 봄 여행.

03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강재엽(부산진구 범천로) 오연옥(남구 용호로)
 곽지숙(양산시 평산길) 이무형(북구 모본재로)
 김혜영(금정구 금강로) 최해원(북구 효열로)
 류은미(동래구 쇠미로) 최호선(연제구 법원북로)
 박순형(해운대구 대천로) 황선호(남구 수영로)

● 기존 회원

고광식(남구 석포로) 박영희(남구 황령대로)
 고수진(동구 중앙대로) 박용주(부산진구 중앙번영로)
 곽기만(영도구 일산봉로) 박창열(남구 석포로)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정석수(남구 황령대로)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하윤희(부산진구 초읍천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6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개굴개굴 청개구리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2017. 3. 20(월)~31(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토,일은 제외)

- 관람료: 균일 1,000원
- 공연관람 연령: 미취학 아동
- 단체관람 문의: 607-3121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R. Schumann

Dichterliebe Op.48(시인의 사랑)

오스트리아의 봄 / 한국의 봄
봄의 사랑 / 하나의 꽃의 의한 두 노래



부산시립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인의 사랑

그리고 봄의 노래

2017. 3. 21 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051) 607-3115~6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www.bscc.or.kr>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다나기야 청산가자



지현 이정림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예술감독
김승철



부산시립무용단



비나리
이조형



가야금
김혜진



경거민요
김세운



경거민요
이은혜



사물놀이
박재현, 이주현, 최오성, 전학수

2017. 3. 23(목)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 무용을 위한 관현악 [여명의 빛]
작곡: 박범훈 // 춤: 부산시립무용단

2. 비나리를 위한 국악관현악
작곡: 이준호 // 소리: 이준형

3. 감태홍류 가야금 산조협주곡 [파사칼리아]
작곡: 김영란 / 가야금: 김혜진

4. 성악 협주곡 [울고 분노하는 산]
작곡: 김기영 / 민요: 김세운, 이은혜 / 장구: 윤승환

5.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本]
작곡: 정송희

협연: 전학수(장구), 최오성(북), 이주현(꽹과리), 박재현(징)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A석 10,000원, B석 5,000원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300억 유산을 두고
펼쳐지는 웃음과 눈물의
코믹 휴먼연극!”

블랙코메디

아비

작 김광탁
예술감독/연출 박종필

2017. 4. 4(화) - 4. 15(토)

주중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5시 / 입장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607-3123(전통예술팀 및 극단팀) 대입 7세 이상
매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인터파크 할인 문화회관 정기회원 30%,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50%, 종교동학연, 예술인패스 및 만23세 이하의 청년 30%
출연진 황창기 정형심 이현주 이혁우 김은희 엄지선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제작진 | 예술감독/연출 박종필 작 김광탁 300억 유산이 어떻게 싸게 팔렸을 무라사이는 황지선 최영미 000 미사이는 언행숙 최영미 000 최영미 000

CULTURE

LIFE

March 2017
vol. 303

INVITATION TO THE ARTS

28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48 새로 나온 음반

49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지휘 사진



피아노 이진상 ©Rami Hyun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신춘음악회-새봄의 클래식'이 3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3.10(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섬세하고 드라마틱한 지휘 테크닉으로 다양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지휘자 서진이 객원지휘하고 지난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함께 대회 최초로 슈만상, 모차르트상 그리고 청중특별상을 휩쓸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을 시작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차이코프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우리에게 친숙한 경쾌한 곡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 지휘자 서진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악대학원 지휘과를 최고점수로 졸업한 후 지난 2007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개최된 제4회 로브로 폰 마타치치 국제지휘콩쿠르에서 Papandopulo 현대음악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0년에는 유능한 젊은 지휘자를 지원하는 독일오케스트라협회 주최 제8회 베를린 Interaction Conducting Workshop에서 4인의 유망 신예지휘자로 선정되어 베를린 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등 독일의 유명 오케스트라 악장들과 수석연주자들로 구성된 Critical Orchestra를 지휘하여 극찬을 받기도 했다. 서진은 지난 2014년 과천시립교향악단 제2대 지휘자로 취임한 후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다양한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다.

로시니 최후의 오페라이자 오늘날에는 오페라보다도 서곡으로 더욱 유명한 '빌헬름 텔' 서곡을 첫 시작으로 이어서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라흐마니노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중 '크렘린 궁전의 종소리'라 불리는 제1악장을 연주한다.

협연자 이진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지난 2005년 독일 쾰른 국제피아노콩쿠르, 2008년 홍콩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진상은 Beethoven Trio Bonn의 피아니스트로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드보르작 최고의 교향곡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 제8번 4악장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제목처럼 힘차고 당당한 행진곡으로 우리 귀에도 친숙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을 시작으로, 종교적 분위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멜로디로 즐겨 연주되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이어서는 립스키-코르사코프로부터 '러시아의 모든 음악 중 가장 아름다운 테마'라 격찬받은 차이코프스키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2017 신춘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강의 White Day Talk Concert

부산의 문화 이야기로 풀다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좋은만남' 600회 특집-

진행 정두환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박인건



부경대학교 남송우 교수



2017년 1월,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보다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특별한 기획 강연을 마련한다.

3.14(화) 오후 7:30/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61~3

이번 'White Day Talk Concert'는 기존 실기강좌 위주의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특히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3월 14일 600회를 맞는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좋은만남'을 초청,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은 작곡과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음악사를 비롯한 음악분야에서부터 미학, 문화학, 문화기획론 등 다양한 강의를 맡아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작곡가, 지휘자, 음악평론가,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펼쳐온 정두환은 지난 17여 년간 라디오방송 진행자로도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방송의 클래식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가져온 '좋은음악&좋은만남'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그동안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문화연구소 등에서 진행되어 오다 2007년 3월, 320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새롭게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에는 500회를 기념하는 특별음악회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면서 당시 지역문화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White Day Talk Concert'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과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부경대학교 남송우 교수와 함께 '부산의 문화 이야기로 풀다'라는 주제로 부산의 공연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박인건 대표이사는 KBS교향악단 사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충무아트홀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공연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행정가로 활동해왔다. 남송우 교수는 2011년 부산문화재단 제

2대 대표이사에 이어 2014년 제3대 대표이사를 연임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정두환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초대손님들과의 좌담을 통해 부산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축하무대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재순, 이명현, 비올리스트 박은혜, 첼리스트 강경아로 구성된 윤슬현악사중주단과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7명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브라스밴드 '파도도시 크루'가 출연, 비발디 '사계' 중 '봄', 피터 하이드리히 '해피 버스데이 변주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 드라마 주제곡, 흥겨운 브라스 연주곡들을 들려준다.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텀'

지난 2015년 한국 초연무대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흥행 1위를 차지한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팬텀'이 부산을 찾는다.

3.18-19(토-일) 오후 2:00, 6: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원, OP석 13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오후 2:00 공연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1982년 뮤지컬 '나인(Nine)'으로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휩쓸었던 극작가 아서 코핏과 작곡가 모리 에스톤이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의 대표작 '오페라의 유령'을 무대화한 '팬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는 원작이 같은 작품으로,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팬텀'은 1992년에 제작되었다. 원래는 아서 코핏과 모리 에스톤이 토니상 작품상을 받은 이듬해인 1983년,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뮤지컬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제작에 들어갔으나 1984년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제작을 공식 발표하고 2년 후 '오페라의 유령'이 웨스트엔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결국 제작이 중단되었다. 당시 제작 중단에도 뮤지컬 '팬텀'의 성공을 확신했던 아서 코핏과 모리 에스톤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991년, 미국 휴스턴 Theater Under the Stars에서 뮤지컬 '팬텀'의 첫 선을 보인 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흥행불패의 신화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초연무대를 통해 연간 티켓 판매 순위 1위, 골든티켓 어워드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 '팬텀'은 역대급 황금라인업으로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면서 지난해 관객들이 가장 많이 관람한 뮤지컬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뮤지컬 '팬텀'은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파리의 오페라극장 지하에 숨어 사는 에릭이 크리스틴 다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심도 있는 스토리와 클래식한 음악으로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오페라의 유령'으로 불리는 미스터리한 캐릭터인 에릭의 인간적인 면에 집중하여 그가 가진 사랑, 분노, 설렘, 두려움 등 폭 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비극적인 스토리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팬텀'은 초연무대와의 차별화를 위해 음악, 무대, 영상, 조명 등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 프

로덕션만을 위한 새로운 곡을 추가하여 팬텀, 크리스틴 다에, 필립의 캐릭터를 강화했으며 원곡의 이름답고 클래식한 선율에 현대적인 일렉트론 사운드를 가미한 편곡으로 음악적 완성도에 힘을 더했다. 여기에 팬텀의 과거 이야기를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레 장면의 비중을 높이고 무대, 영상, 조명 등 비주얼적인 업그레이드도 시도했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팬텀 역에는 초연 당시 전 좌석을 매진시키며 화제를 낳았던 박효신과 새로운 팬텀 역으로 캐스팅된 박은석, 전동석이, 팬텀을 만나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디바로 성장하는 크리스틴 다에 역에는 초연 배우인 김순영과 김소현, 이지혜가 캐스팅되는 등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이밖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마 발레리나 김주원과 유니버설 발레단을 이끄는 주역 발레리나 황혜민이 초연에 이어 고풍적인 발레리나 벨라도바 역을 다시 맡아 정통 클래식 발레의 정수를 보여준다.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인의 사랑 그리고 봄의 노래지휘
전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새 봄의 설렘을 담은 아름다운 합창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3.21(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시인의 사랑 그리고 봄의 노래’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의 지휘로 순수한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슈만의 대표적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과 봄과 사랑을 엮은 다양한 합창곡으로 즐거운 합창의 세계로 안내한다.

1부에서는 사랑의 시작과 실연의 아픔, 지나간 청춘의 허망함을 노래한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합창곡으로 편곡, 부산시립합창단만의 풍부한 선율로 들려준다. 400여 편에 달하는 수많은 가곡들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시인의 사랑’은 슈만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받았던 독일 작가 하이네가 1827년 발표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노래의 책(Buch der Lieder)’ 중 ‘서정적 간주곡’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서정적 간주곡’에는 하이네가 그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말리에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고통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처럼 내용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완결된 이야기를 지니고 있으며 제1곡~6곡은 사랑의 시작을, 제7곡~14곡은 실연의 아픔에 대해, 15곡과 16곡은 지나간 청춘에 대한 허망함과 잃어버린 사랑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전 곡에 유기적인 연결성을 부여하기 위해 못갖춘 마디를 사용하는 등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경향도 드러나 있다.

‘시인의 사랑’은 당시 스승의 딸인 클라라를 사랑했던 슈만이 스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혼을 위한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이다 결국 스승으로부터 클라라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뒤 나온 작품으로, 낭만가곡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이 묶여져 나온 1840년은 슈만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기록되며, 이 시기에 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시기를 ‘노래의 해(Liederjahr)’라 부르기도 한다.

2부 첫 곡은 봄의 싱그러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당대 유명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가수로, 그 당시 슈트라우스에게 음악적 영감을 불어넣어줬던 비앙카를 위해 작곡된 ‘솔로 소프라노를 위한 왈츠’로, 때때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2막의 아리아로 삽입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최석태 편곡으로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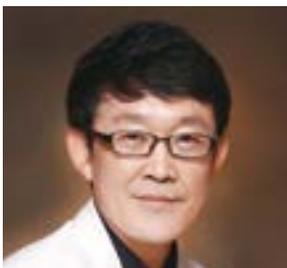
이어지는 무대는 한국의 봄과 봄의 사랑을 노래한 곡으로, 임궁수 곡 ‘강 건너 봄이 오듯’, 김동진 곡 ‘봄이 오면’, 조은성 곡 ‘꽃구름 속에’, 이흥렬 곡 ‘부끄러움’, 홍난파 곡 ‘고향의 봄’ 등 봄이 오면 누구나 즐겨부르는 친숙한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하나의 시에 의한 두 노래로,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한 김소월 시 ‘못잊어’에 곡을 붙인 작곡가 조성은, 조혜영의 곡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나비아 청산가자

지휘 이준형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나비아 청산가자'가 3월 2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비나리 이준형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용철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김혜진(가야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현(쟁과리), 부수석 최오성(장구), 수석 전학수(북), 단원 박재현(징), (사)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단원 이준형,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운, 이은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윤승환이 출연, 새봄의 흥취에 어울리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가야금 김혜진



첫 무대는 왕세자의 거동이나 궁중연희에 사용되던 전통 합주곡인 '수제전'에 궁정춤이 어우러지는 박범훈 곡 무용을 위한 관현악 '여명의 빛'.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황동하, 김도은, 박창희, 김주연, 김미란, 김경미, 윤은하, 이현주, 전혜련, 안주희, 이나겸, 김시현, 박미나, 김수잔이 출연, 웅장한 연주 속에 엄숙함과 장중함이 조화를 이룬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경기민요 김세운



이준호 곡 '비나리를 위한 국악관현악'은 창작판소리집단 '바닥소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준형의 소리로 들려준다. 이준형은 지난 2011년 세계사물놀이대회 사물놀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16 KBS 송년정기연주회, 2016 한승석&정재일 '바리 abandoned'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경기민요 이은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이자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인 김혜진은 이번 무대에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국악관현악과의 협주곡으로 재창작한 김영란 곡 '파사칼리아'를

3.23(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들려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악음악인 산조의 선율과 리듬을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변주곡 형식인 '파사칼리아'와 융합시킨 이번 작품은 제8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에서 국악과 양악의 형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변주를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운, 이은혜는 경기도 선소리타령을 오늘날 현대인의 감성으로 풀어낸 김기영 곡 선소리타령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울고 분노하는 산(The Mountains Angry Cry)'을 들려준다. 국립부산국악원 제12회 정기공연 위촉곡으로, 자유로운 타악의 즉흥연주와 함께 원곡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강한 정신을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은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제6회 경서도소리경연대회 대상, 제10회 경기국악제 민요부문 대상, 제12회 대한민국여성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대상을, 김세운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이수자로, 제27회 경기국악제 민요부문 대상, 제20회 KBS국악대경연 민요부문 장원, 제30회 온나라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 무대는 정송희 곡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본(本)'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주현, 최오성, 전학수, 박재현의 신명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베르디 편-

재
운
범지
휘
자
김
봉
미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가 3월 24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올 한해 8차례 진행된다.

3.24(금)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초, 중, 고, 대학생, 다자녀가족,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30% 할인, 학생단체 20명 이상 1인 5천원, 3회 동시구매 30%, 4회 동시구매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마티네 웰빙콘서트'는 그동안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사랑받아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웰빙콘서트'를 부산문화회관만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탄생시킨 무대로, 특히 4차례 진행되는 상반기 무대에서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이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관객들을 행복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오페라의 제왕' 베르디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소프라노 구민영, 김성은, 테너 김지호, 신동원이 출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을 비롯해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상반기 마티네 콘서트를 이끌어갈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은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매스컴의 찬사를 받은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극동아트TV(전 예당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며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왔다. 조운범은 현재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입 수석지휘자로 임명된 후 이번 무대를 통해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는 지휘자 김봉미는 독일 테트몰트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한 후 독일 현지 오케스트라들과 호흡을 맞추며 실력과 명성을 쌓아오다 지난 2008년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를 맡으며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귀국 후 수많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초청음악회, 오페라 등 수백 회가 넘는 지휘활동을 통해 지휘자로서 명성을 쌓아온 김봉미는 특히 오페라 지휘에 큰 두각을 보이며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지휘자상을 받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김봉미는 현재 유니타르트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헤럴드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김성은은 이태리 베로나 아레나 야의 오페라 원형극장에서 동양인 최초로 오페라 '리골레토'의 주역을 맡는 등 그동안 국내 및 이태리,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등 유명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가수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소프라노 구민영은 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쿠르 특별상, Musica Sacra 국제종교성악콩쿠르 로마 지역청상 수상 등 다수 입상했으며 현재 이탈리아 I Virtuosi della Musica Sacra 소속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테너 신동원은 영국 코벤트가든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아이다'의 라다메스 역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영국 로얄오페라,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 독일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등 국내외 우수 오페라단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테너 김지호는 2009년 쿠바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 주역 출연 및 어워드 대상 수상, 2010년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아이다' 주역, 2011년 부산문화회관 기획 오페라 '투란도트'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7회 정기연주회
만프레드

지휘 마누엘 로페스-고메스



바이올린 정준수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표제 교향곡 '만프레드'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7회 정기연주회가 3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3.31(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음악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의 뛰어난 영재들 중 한 명으로 음악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고메스가 객원지휘하고 섬세한 테크닉과 깊이있는 연주로 사랑받는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정준수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코프스키 '만프레드' 외에도 브람스, 멘델스존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엘 시스테마'를 창시한 거장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로부터 '훌륭한 정신과 높은 책임감, 믿음직한 예술적 감각으로 베네수엘라의 음악적 발전에 뛰어난 수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고메스는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수년간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하다 '엘 시스테마'가 낳은 최고의 스타 구스타보 두다멜을 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휘자의 길로 들어섰다. 2014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서 '엘 시스테마'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랑랑과 함께 무대에 섰던 고메스는 2014/15시즌을 통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 이후 LA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의 무대가 큰 호평을 받으면서 '엘 시스테마'의 음악감독으로 보여준 획기적인 능력뿐 아니라 통찰력과 영감을 주는 객원지휘자로 널리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브뤼셀 필하모닉과, 북서독일 필하모닉,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을 지휘한 고메스는 최근 체코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크리스티안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정준수가 협연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완숙기에 접어든 베토벤 특유의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위, 장대함 등을 느낄 수 있다. 협연자 정준수는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재학 시절, 당시 뛰어난 기량으로 작곡가 율리우스의 곡을 의뢰 받아 연

주해 화제를 모았으며 독일 다름슈타트와 브레멘의 현대음악제에 초청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귀국 후 수원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정준수는 현재 악장으로 있는 서울챔버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체리티 체임버앙상블, 한국페스티벌앙상블 활동을 통해 실내악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바이올린의 동명의 장편 극시에 기초한 '만프레드'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적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표제음악의 대표작 중 하나로, 알프스 산 속의 방황하는 만프레드를 그린 제1악장과 극시의 배경이 되는 명쾌한 목가적 풍경을 담은 제2, 3악장, 그리고 알프스의 산신 아리마네스의 지하 궁전에서 펼쳐지는 향연과 만프레드의 최후를 그린 제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7 교향악축제'에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고메스, 바이올리니스트 정준수와 함께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가한다.

Preview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김봉미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Symphony No. 5'

지휘 김봉미



올해 신임 수석지휘자로 임명된 지휘자 김봉미의 수석지휘자 취임 기념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가 4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트럼펫 안희찬



올해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베토벤,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트럼펫터 안희찬과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김충희의 협연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비롯해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장 바티스트 아르방의 '베니스 축제를 주제로 한 환상변주곡',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김봉미 수석지휘자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대를 거쳐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피아노과에 최고점수로 입학, 디플롬을 받은 뒤, 수많은 거장들이 거처간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독일 정부(DAAD)와 데트몰트시(GFF)의 장학생으로 전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했다. 2010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여성 최초로 수상, 음악계에 큰 화제를 낳았던 김봉미는 2003년 바흐 음악의 거장인 헬무트릴링의 스투트가르트 바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동양여성 최측 지휘, 2008년 문화관광부 주최 제1회 신진여성문화인상 첫 수상 등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보통명사처럼 따라다닌다. 오페라 지휘에도 큰 두각을 보이며 2011년과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연이어 여성지휘자로서는 유일하게 무대에 섰던 김봉미는 2012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지휘자상을 수상했다. 김봉미는 현재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음악감독, 헤럴드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있다.

테너 김충희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트럼펫터 안희찬이 협연하는 장 바티스트 아르방의 '베니스 축제를 주제로 한 환상변주곡'을 들려준다. 지난 2003년, 2005년

4.5(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한국의 최고 관악기연주자(동아일보)로 선정된 바 있는 안희찬은 KBS교향악단 수석, 코리아 심포니 수석, 아시아 필 수석, 나고야 필 객원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서울금관5중주 리더, 연변예술대학교 객좌교수, 글로벌 악기회사 CON SELMER 아티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김충희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꽃의 노래-이 꽃을 내가 던졌었지', '피날레-그건 당신? 그건 나'를 들려준다. 현재 안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추희명은 뉴욕 푸치니국제콩쿠르에 입상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귀국 후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솔로이스트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충희는 지난 2014년 독일 튜링엔 주 최고의 예술가상을 수상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취임연주회의 마지막 무대는 '운명교향곡'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 교향곡 제5번으로, 김봉미 수석지휘자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음악애호가들과의 운명같은 첫 만남을 축하한다.

Review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스윗 발렌타인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박진홍 음악평론가

2월 14일, 연인들을 위한 날인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사랑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바쁜 일정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부산 문화회관을 찾은 필자는 대극장 입구에서부터 낮선 풍경을 만났다. 푸드 트럭 4대가 식사를 하지 못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로비에는 캐릭터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예전에 비해 두터워진 팜플릿에는 연주곡 및 연주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의 광고를 도입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다.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부산문화회관이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변화들이 낯설기도 하지만 음식을 사 먹고,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달라진 변화에 관심을 보이는 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윗 발렌타인’이라는 제목의 이날 연주회는 영남대학교 백윤학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 그리고 뮤지컬 배우 카이가 함께 무대에 섰다. 사회를 맡은 카이는 FM 라디오 ‘생생 클래식’, ‘세상의 모든 음악’을 진행했던 특유의 유머와 감미로우므로 연주회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 주었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프코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중 3악장을 연주했다. 슬픈 사랑

의 분위기가 섬세하게 잘 표현되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상과 함께 연주되어 아련한 사랑의 분위기가 더욱 잘 전달되었다.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의 연주에서는 영롱한 느낌의 현악기,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목관, 무심한 듯 감성을 자극하는 금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한층 짙어졌다.

지휘를 맡은 백윤학 교수는 매우 강렬한 몸짓을 보여 주었다. 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전체를 압도하는 에너지 넘치는 바통을 선보이며 무대를 장악했다. 하지만 지휘 능력을 가능할 만한 수준의 곡이 이날 프로그램에 없어 기회가 된다면 다른 무대를 통해 백윤학 교수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지휘 테크닉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어떻게 리드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의 협연으로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이 연주되었다. 바이올린의 연주는 감성선이 명확하고 기교적인 부분의 표현력이 좋았으나 안정적인 음색과 음정이 다소 부족해 아쉬움을 주었다. 후반부 연주에서는 영화 ‘러브스토리’의 메인 테마음악이 먼저 연주되었다. 프로그램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 보는 옛 음악이 흘러 나와 중년 관객들이 잠시 추억에 빠지기도 했다.

이어서 인치엘로가 존 덴버의 ‘Perhaps Love’, 카푸아의 ‘O Sole Mio’, 영화 ‘화양연화’ 중 ‘Quizas, Quizas, Quizas’를 노래했다. 두 명의 테너와 한 명의 바리톤으로 구성된 남성 3인조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에 관객들이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음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Over the rainbow’,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Moon River’가 연주되었고, 이문경의 바이올린과 함께 영화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가 연주되었다. 귀에 익은 음악들을 영화의 명장면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이날 연주회의 사회를 맡은 뮤지컬 배우 카이가 영화 ‘노팅힐’ 중 ‘She’, 프란체스코 사르토리(Francesco Sartori)의 ‘Time to say goodbye’를 노래했다. 카이는 여러 뮤지컬 작품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배우 겸 가수로서 KBS ‘불후의 명곡’이나 MBC ‘복면가왕’ 등에 출연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 재미있는 입담으로 특히 여성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발렌타인데이 콘서트는 사랑을 주제로 한 낯익은 음악들을 영상과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편성으로 감상할 수 있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Review

신은 죽었다를 사건으로 장면화 했었으면 좋았을 '누구니, 난?'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남겨진 대표적인 과제 하나가 바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물음이다. 2017 부산시립극단의 특별공연 배우 워크숍 '누구니, 난?'(2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도 오래된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삶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을 한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상의 삶과 같은 경험이 있는가하면 어둡고 피폐한 경험도 있다. 어떤 경험 속에서든지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고자 세상에 질문을 던지며 부딪히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경험 속에는 거만하고 폭력적인 존재도 있고 희생되는 존재도 있다.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받아 천상의 길로 간다.

'누구니, 난?'은 이처럼 다층의 인간모습을 근간으로 하였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연극화하는 것이었다. '대장간'이라는 김홍도의 그림이 있다. 대장장이는 판서의 서자이고 전직 검객이었다. 이 검객은 청부살인으로 날을 보내다가 검객생활을 청산하고 대장장이가 된다. 이 대장장은 칼 버리는데 남다른 재주를 가졌지만 호

미와 낮 만드는데 열중함으로써 청부살인을 밥 먹듯 저질렀던 과거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자 하였다. 어느 날 이 대장장은 모반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글을 몰랐던 대장장은 '대장간' 그림을 그려 왕실에 보낸다. 그림 속에 모반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암호화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반의 과수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기의 아버지 김판서였고 더 놀라운 것은 대장장이의 아들이 모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반이 일어나고 두건을 쓴 역적들과 왕당파의 치열한 칼싸움이 전개되었다. 모두가 쓰러지고 양측에서 한 명만이 남았다. 두건을 쓴 양측의 마지막 검객들이 칼을 겨누고 결국 대장장은 모반의 마지막 역적을 벤 후 그의 두건을 벗겼다. 아들이었다. 김홍도의 '대장간'을 보고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어떻게 대본에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니, 난?'의 경우 대사는 거의 없고 몸짓만으로 표현했다. 연극배우는 목소리 연기를 근간으로 한다. 근간이 무시된 이번 워크숍은 배우들의 연기를 체감할 수 없어 아쉬웠다. 몸짓이 작품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다. 연출의 일차 책임으로 생각된다. 연출의 의도와 전달 매체가 상호 조응할 때 그 작품은 빛이 날 것이다.

연극에게 필요한 것은 극화된 장면이다. '인간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죽음을 안고 또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줄 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 그것은 철학이다. 연극은 연극이 끝났을 때 신이 죽었구나라고 관객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의 연기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갈등을 만들고 사건을 제시해야 한다. 넌버벌 퍼포먼스를 의도했다거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만으로 극의 내용을 전달할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면 다른 형식을 추구했어야 한다.

훌륭한 배우가 좋은 연출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우리는 빛나는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의 절규하는 비극이나 흐드러지게 깔깔대는 희극을 보고 싶다. 배우에게 작품을 쓰게 하고 연출을 지시한 것이 예술감독의 아량이었는지 직무유기였는지 궁금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7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일 시 |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과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지휘자 서진이 객원지휘하고 지난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함께 대회 최초로 슈만상, 모차르트상 그리고 청중특별상을 휩쓸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새봄에 어울리는 경쾌한 곡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로시니/빌헬름 텔' 서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중 제1악장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중 제4악장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

1타2피 콘서트

경남필하모닉 청소년관현악단 & C.I. Wind Orchestra

일 시 | 3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경남필하모닉 청소년관현악단 010-4901-2141



현악단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윈드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C.I. Wind Orchestra와 함께하는 1타2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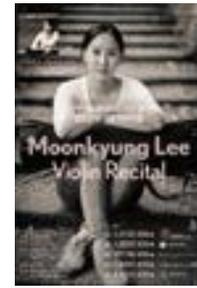
2014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경남필하모닉 청소년관현악단은 그동안 두 차례 정기 연주회와 제주국제관악제,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경남어울림페스티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2016년에는 제2회 동호인밴드 경연대회에서 합주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2014년 부산, 경남의 관악주자들이 모여 만든 'Constant Innovation Wind Orchestra'에서 출발한 C.I. Wind Orchestra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봉사연주회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총감독/주원배 •지휘/강예슬, 박정우

지난 2013년 '경남 엘시스테마 청소년관악단'으로 창단한 후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온 경남 필하모닉 청소년관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앨범발매 기념 리사이틀

일 시 | 3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대학생까지 50% 할인)
 문 의 | 클래식 라운지 02-707-1550



미국 월넛힐 아트스쿨과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예일대학교(석사), 뉴욕대학교(박사)를 졸업한 이문경은 그동안 마에스트로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지휘하는 코르도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비롯해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베토

벤 트리플 콘체르토 협연, 오스트리아 작곡가 이그나츠 플레이엘 탄생 250주년 기념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등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2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진행된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앨범 발매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음반에 수록된 차이코프스키 '소중할 곳에 대한 추억 작품 42'를 비롯해 프 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15',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작품 25' 등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강의

White Day Talk Concert
부산의 문화이야기로 풀다

-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좋은만남' 600회 특집-

일 시 | 3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국제회의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61~3

2017년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보다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마련한 특별한 강의 'White Day Talk Concert'.

이번 무대는 기존 실기강좌 위주의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특히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3월 14일 600회를 맞는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좋은만남'을 초청,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진행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부경대학교 남송우 교수와 함께 '부산의 문화 이야기로 풀다'라는 주제로 부산의 공연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음악선님/윤슬현(사중주단, 브라스밴드 '파도도시 크루')

노선경 귀국 작곡 발표회

일 시 | 3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문 의 | 노선경 010-4855-5217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프라이너 콘서바토리움(Prayner Konservatorium)에서 작곡전공 Diplom 과정을 졸업한 작곡가 노선경 작곡발표회.

오스트리아 유학시절 Benefizkonzert, 초청연

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작품활동을 가져온 노선경은 학부 졸업 후 독일로 건너가 프라이부르크, 베를린 등에서도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음악양상을 누벨바그의 연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연주/ 현대음악양상을 누벨바그(플루트 장예지, 클라리넷 유지훈, 바이올린, 손은혜, 탁서연, 비올라 김기민, 첼로 김나래, 피아노 진승민)

부산낭만빅밴드 창단연주회

일 시 | 3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낭만빅밴드 010-8503-7903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 직장인들로 결성된 부산낭만빅밴드 창단연주회.

부산낭만빅밴드는 지난 2015년 1월, 음악감독 및 지휘를 맡고 있는 최민호 단장을 비롯해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등 20명의 관악연주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빅밴드로, 이번 무대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배우고 연습했던 곡들을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Theme from New York, New York'을 시작으로 어깨춤이 절로 나는 'Sway', 영화 '록키' 주제곡 'Eye of the tiger'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들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무대로 꾸민다.

•음악감독, 지휘/최민호(단장)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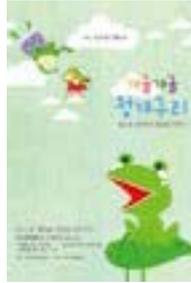
일 시 | 3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4만원, OP석 13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오후 2:00 공연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2015년 한국 초연 무대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흥행 1위를 차지한 뮤지컬 '팬텀'.
 흥축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파리의 오페라극장 지하에 숨어 사는 에릭이 크리스틴 다예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낸 뮤지컬 '팬텀'은 폭 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비극적인 스토리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흥행신화를 이어오고 있다.
 주인공 팬텀 역에는 초연 당시 전 좌석을 매진시키며 화제를 낳았던 박효신과 새로운 팬텀 역으로 캐스팅된 박은석, 전동석이, 팬텀을 만나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디바로 성장하는 크리스틴 다예 역에는 초연 배우인 김순영과 김소현, 이지혜가 캐스팅되는 등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몰한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개굴개굴 청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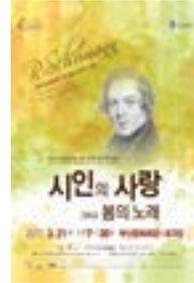
일 시 | 3월 20일(월)-24일(금), 27일(월)-31일(금)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미취학 아동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추는 동화' 2017년 무대 '춤으로 보는 청개구리 이야기'.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내는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공연 때마다 매진사례를 낳고 있다. 올해 무대에서는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를 무대에 옮겨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을 갖는다.
 •해설/이현숙(A팀), 권봉정(B팀)
 •출연/엄마개구리 김주령, 개구리 안주희, 이상민, 김도은, 김시현, 김수진(A팀), 엄마개구리 허태성, 개구리 박창희, 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김경미(B팀)

부산시립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인의 사랑 그리고 봄의 노래

일 시 |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새로운 시작을 일리는 봄을 맞아 새 봄의 설렘을 담은 아름다운 합창곡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인의 사랑 그리고 봄의 노래'.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순수한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슈만의 대표적인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봄과 사랑을 엮은 다양한 합창곡으로 즐거운 합창의 세계로 안내한다.
|프로그램|
 슈만/시인의 사랑 작품 48
 요한 슈트라우스 2세/봄의 소리 왈츠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김동진/봄이 오면
 조성은/꽃구름 속에
 이흥렬/부끄러움 등 수곡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벅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3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초, 중, 고, 대학생, 다자녀가족,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설적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를 떠올리는 '젊은 거장' 벅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지난 2009년 18세의 나이로 런던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며 세계 음악계에 등장한 벅조드 압드라이모프는 강렬한 타건과 화려한 기교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권위 있는 일간지들로부터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젊은 연주자'로 지목되면서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이다.
|프로그램|
 바흐/독주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 제5번 라단조 BWV 596 중 '시칠리아노'
 바흐/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BWV 565
 슈베르트/피아노를 위한 '악흥의 순간' 작품 94 D.780 중 제2번, 제3번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3번 바단조 작품 57 '열정'
 프로코피예프/피아노 소나타 제6번 가장조 작품 8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나비야 청산가자

일 시 |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용철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김혜진(가야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현(쟁과리), 부수석 최오성(장구), 수석 전학수(북), 단원 박재현(징), (사)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단원 이준형,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윤, 이은혜가 출연, 창작 국악관현악에서부터 산조협주곡, 창작민요, 사물놀이 등 새봄의 흥취에 어울리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박범훈/무용을 위한 관현악 '여명의 빛'
 이준호/비나리를 위한 국악관현악
 김영란/강태홍류 가야금 산조협주곡 '파시칼리아'
 김기영/성악 협주곡 '울고 분노하는 산' 등
 •객원출연/윤승환(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베르디편-

일 시 |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초, 중, 고, 대학생, 다자녀가족,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30% 할인, 학생단체 20명 이상 1인 5천원, 3회 동시구매 30%, 4회 동시구매 4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 첫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4차례 진행되는 상반기 무대에서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깊이 있는 해설로 관객들을 행복의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오페라의 제왕' 베르디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부산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소프라노 구민영, 김성은, 테너 김지호, 신동원이 출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설행진곡'을 비롯한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3월 24일 베르디에 이어 4월 바그너(4월 28일), 5월 푸치니(5월 31일), 6월 R.슈트라우스(6월 30일) 편이 이어진다.

오페라 부산 심포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 시 | 3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부산 최초 직업전문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창단한 아트심포니 오케스트라(1998~2013)의 맥을 이어 지역의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새롭게 재창단한 오페라 부산 심포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오페라 부산 심포닉 오케스트라는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맞춰 오페라 음악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오페라 인구의 자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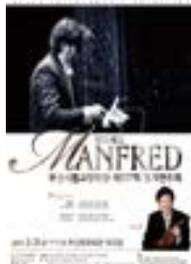
- 지휘/박성완
- 협연/전지훈(피아노), 김은희(소프라노), 김성진(테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7회 정기연주회 만프레드

일 시 | 3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표제 교향곡 '만프레드'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7회 정기연주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음악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의 뛰어난 영재들 중 한 명으로 음악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고메스가 객원지휘하고 섬세한 테크닉과 깊이있는 연주로 사랑받는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정준수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코프스키 '만프레드' 외에도 브람스, 멘델스존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 객원지휘/마누엘 로페스-고메스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정준수
- 객원악장/박재홍(Strictly Strings 예술감독)

소프라노 김성은 & 바리톤 고성현 듀오 콘서트

일 시 | 4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이태리에서 활동 중인 부산 출신의 소프라노 김성과 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이 함께하는 듀오 콘서트.

김성은은 전국 대구성악콩쿠르 대상,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 우승 및 특별상,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대상, 이태리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우승, 스페인 아라갈 국제콩쿠르 우승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고성현은 이태리 푸치니 국제콩쿠르 1위,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나비부 국제콩쿠르 1위, 독일 슈트트가르트 오페라 극장 국제콩쿠르 1위 수상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김봉미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Symphony No. 5'

일 시 | 4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2017년 신입 수석지휘자로 임명된 지휘자 김봉미의 취임 기념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올해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베토벤,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트럼펫터 안희찬과 메조소프라노 주희명, 테너 김충희의 협연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비롯해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장 바티스트 아르방의 '베니스 축제를 주제로 한 환상변주곡',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장 바티스트 아르방/베니스 축제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꽃의 노래-이 꽃을 내가 던졌었지'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이중창 '피날레-그건 당신? 그건 나'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 지휘/김봉미(수석지휘자)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3월 18일, 25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무료 ※향후 토요상설무대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3월 4일 부산시립무용단 '춤의 회화전' [프로그램]

미알함미들(출연/장래훈, 하태성, 전현우)
목포의 눈물(출연/남도옥, 이현숙)
사랑과 영혼(출연/최의옥, 황동하)
타이타닉(출연/장영진, 박미나)
쌔 슬플 비(출연/강모세)
Dirty water(출연/김진영)
바라보다(출연/안주희)

- 예술감독/김용철
- 해설/이현숙



3월 1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수제천(집박/채수만 · 대금/강은주, 엄익준, 황두호 · 소금/조은경 · 피리/김용우, 박춘석, 박영은 · 해금/김민정, 정수경, 이은주 · 아쟁/최희정 · 장구/송강수 · 좌고/박재현)

대금독주 '청성곡'(대금/강영진)

천년만세(대금/최재호 · 피리/권미정 · 해금/정수경 · 양금/장미진 · 단소/김수일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엄애리 · 장구/최오성)

해금중주 '적념'(해금/최윤정 · 신디사이저/강메라)

남도민요 '흥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김민정 · 아쟁/권혜정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송강수)

성주굿을 위한 비니리(소리, 팽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북/전학수 · 징/박재현)



제58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 2017 Cellist 시리즈 I 리 신차오 & 이일세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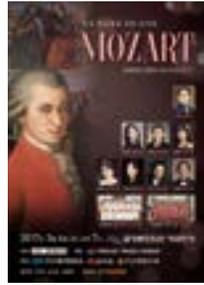


'2017 Cellist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에서는 지난 8년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하며 부산음악에 호기들을 사로잡은 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이일세의 협연으로, 작곡가 김지만의 창작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And Life Goes On'을 비롯해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작품 104, 교향곡 제8번 작품 88를 들려준다.

- 지휘/리 신차오
- 연주/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 협연/첼리스트 이일세

본당 복음화를 위한 음악회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곡 K.317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무료
문의 |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현재 해운대 노노실버 합창단, 노이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고봉수가 지휘하는 거제동성당 클로리아 성가대, 덕계성당 마리오셀성가대가 들려주는 본당 복음화를 위한 음악회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곡 K.317'.

모차르트가 그의 나이 23세 때 잘츠부르크에서 완성한 '대관식 미사'는 그가 작곡한 총 19개의 미사곡 중 16번째 작품으로, 축일의 미사곡답게 밝고 기쁨이 넘치는 우아하고 화려한 작품이다. 보통 미사곡이 Kyrie, Gloria, Credo, Sanctus, Agnus Dei 등 5개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관식 미사'에는 제4곡과 제5곡 사이에 Benedictus가 들어가 총 6곡으로, 4부 합창과 4부 솔로로 구성되어 있다.

- 지휘/고봉수
- 피아노/권선경, 최혜인
- 오르간/이효진
- 소프라노/신정순
- 엘토/정은영
- 테너/양승엽
- 바리톤/정승화

제2회 김영실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H&Music Co 010-5596-8600



탁월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영실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아카데미 연구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하모니아 앙상블,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The Pianissimo 예술학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실은 그동안 독일과 서울 등 12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실내악 무대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 K. 265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7 제2번 '월광' 최영민/Fantasy from Arirang 리스트/스페인 랩소디 S. 254
- 바이올린/윤주연, 정다희
- 비올라/김가민
- 첼로/김근혜

제3회 유지훈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3월 5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유지훈 010-7100-9075



화려한 테크닉과 개성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의 세 번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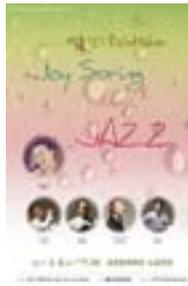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무동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 물라디 클라리넷 컴퍼니 악장,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지훈은 이번 무대에서 슈만과 라벨, 라흐마니노프 등 클라리넷의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과 함께 막시모 디에고 푸올의 작품을 통해 클래식 기타와의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슈만/아다지오와 알레그로 라벨/하비네라 형식의 소품 라흐마니노프/엘레지 3중주 제1번 사단조막시모 디에고 푸올/2 Aires Candomberos 조셉 호로비츠/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김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30(1일, 15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31일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로 일반 7천원, 학생 3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8일 재즈보컬 백흥선 & RainMaker
'Joy Spring with Jazz' Concert



서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넘나 들며 다양한 음악의 세계관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백흥선과 부산의 재즈그룹 '레인메이커'의 재즈 콘서트. 재즈 보컬리스트 백흥선의 부드러운 파워풀한 목소리와 레인메이커의 다양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봄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재즈곡을 들려준다.

22일 심정자 피아노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뉴욕주립대 석사 및 Artist Diploma, 뉴저지 주립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심정자 독주회.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올림다단조 작품 3 제2번
프로코피예프/피아노소나타 내림나장조 작품 83 제7번
무소르그스키/잔람회의 그림

29일 콰르텟 마넬리 제2회 정기연주회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앙상블 라감르 멤버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정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에 있는 비올리스트 황영은, KNN 방송교향악단 단원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첼리스트 김경연으로 결성된 콰르텟 마넬리의 무대. 콰르텟 마넬리(Quartet Manelli)는 'Be with me(곁에 머물러 주세요)'의 의미를 지니,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관객들의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선율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베베른/현악사중주를 위한 느린 악장
멘델스존/현악사중주 제2번 가장조 작품 13
스메타나/현악사중주 제1번 단조 '나의 생애로부터'

마넬리 듀오 콘서트

일 시 | 3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콰르텟 마넬리 010-5545-9660



지난해 10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콰르텟 마넬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정림, 김지윤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이정림, 김지윤과 함께 비올리스트 황영은, 첼리스트 김경연으로 구성된 콰르텟

마넬리는 'Be with me(곁에 머물러 주세요)'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페르시아어로, '사랑과 헌신'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연주가 끝나고도 관객의 귓가에 맴돌고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선율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 르골레어/소나타 5번
- 소스타코비치/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품
- 헨델/파사칼리아
- 모슈코프스키/모음곡 등
- 피아노/최영민
- 특별출연/황영은(비올라), 김경연(첼로)

이현욱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이현욱 010-8502-4620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실기수석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프랑스 예콜 노르말 음악원,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현욱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에서 최연소로 1위에 입

상,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이현욱은 2006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6회 Osaka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했으며, 갈라 콘서트에서 고베시장의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이현욱은 2013년 창단된 '피아노 블러바드' 창단멤버로, 그동안 독주회 및 다수의 듀오연주, 앙상블 연주회를 통해 열정과 깊이, 섬세함을 모두 갖춘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

- 바흐/소나타 가장조 W.54/4
- 바흐-부조니/사롱느 라단조 BWV 1004
- 브람스/2개의 헵소디 작품 79 등

이진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3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051-442-1941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진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인제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이진은 현재 Like 앙상블, GSE 거제스트링앙상블 대표, 거제시교향악단 제

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에니아프스키, 모차르트, 슈만, 사라사테 등 다양한 시대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비에니아프스키/화려한 플로네이즈 제1번 라장조 작품 4
- 모차르트/소나타 제21번 마단조 K.304
- 헨델-할보르센/파사칼리아
- 슈만/소나타 제1번 가단조 작품 105
- 사라사테/카르멘 환상곡
- 피아노/전경화
- 첼로/조경진

금정문화회관 젊은 연주가 시리즈 I

젊은 Classic-신인을 주목하라!

일 시 | 3월 13일-17일 월-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만 7세 이상)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철저한 공모심사로 실력있는 음악가 발굴의 장이 되고 있는 금정문화회관이 우수한 기량의 신인연주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젊은 연주가 시리즈 첫 번째 '젊은 Classic-신인을 주목하라!'.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고신대학교, 인제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신대학교 등 부산, 경남지역 음악대학을 올해 2월 졸업하는 졸업생들 중 기량이 뛰어난 신인 연주자 31명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첫날인 13일 성악을 시작으로 피아노, 관악, 현악, 작곡 분야로 나누어 5일간 펼쳐진다.

금정문화회관은 이번 '젊은 연주가 시리즈'에 이어 청소년 오케스트라 축제, 국제콩쿠르 갈라콘서트 등 지역 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무대를 계속 가져나갈 예정이다.

[일정]

- 13일(월) 성악
- 14일(화)-15일(수) 피아노
- 16일(목) 관악
- 17일(금) 현악/작곡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26주년 정기공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일 시 | 3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010-9152-0666

지난 1991년 창단 후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신명나게 달려온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정기공연.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이 땅의 생활문화를 일구고 가꿔온 옛소리는 그동안 김해기아씨계문화축전, 일본 후쿠오카 초청 '아시아먼스', 금정산 생명축전, 프랑스 세계 페스티벌, 일본 시모노세키 리틀부산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오고무, 얇은반 사물놀이, 대금과 해금합주 '숨어우는 바람소리', 민요 '벚노래, 지진벚노래, 배떡위라, 진도아리랑', 모듬북 합주 '태동', 학춤, 판국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37회 정기연주회

<라 무지카>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519-5661, 070-8899-7308



생동하는 봄을 맞아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2017 신춘음악회.

예술감독 겸 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김은수와 테너로서는 드물게 폭발력과 섬세함을 갖

춘 테너 김지호, 개성있는 연기와 음색으로 사랑받는 바리톤 박대용, 그리고 KBS어린이합창단이 출연,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뮤지컬 넘버, 대중가요 등 새봄의 꿈과 희망을 담은 특별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 주페/시인과 농부' 서곡
- 김동진/신아리랑
- 레하르/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 도니체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

피아니스트 최은영, 한상민의
양상블 클라썸 정기연주회
세 번째 이야기 'Mozart&Modern'

일 시 | 3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3/19일까지 전화 예매시 50% 할인)
문의 | 양상블 클라썸 010-9423-8004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동문으로 수차례 독주회, 협연 및 실내악 연주를 통해 전문 솔리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은영, 한상민이 지난 2014년 창단한 피아노 듀오 전문연주팀 '양상블 클라썸' 정기연주회.

신선하고 기발한 무대 연출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양상블 클라썸은 그동안 다양한 영역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기획, 큰 호응을 이끌어 클래식과 청중 사이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그리그/소나타 바장조, 작품 553/494
- 루도슬라브스키/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 거친/리듬을 타고 변주곡 등
- 게스트/부산연극제작소 동년

정혜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따뜻한 음색과 감각적인 타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혜은 독주회.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동대학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정혜은은 일찍이 음악적 두각을 보이며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최 콩쿠르 전체대상과 함께 부산시 교육감상 수상, 이탈리아 Val Tidone 국제콩쿠르 영 피아니스트 부문 3위 입상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만 13세의 어린 나이에 헝가리 데브레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는가 하면 독일 유학시절에도 수차례 독주회를 비롯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는 등 솔로와 실내악 연주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정혜은은 3월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의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4회 프롬나드 콘서트
봄을 기다리며...**

일 시 |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1층)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990-7042~7

128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피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온 프롬나드 콘서트는 이번 무대에서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와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협연으로 생동 넘치는 봄을 노래한 비발디 '사계' 중 '봄'을 비롯해 브리튼 '심플시포니' 등 다양한 곡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 예술감독/오충근
- 협연/황지원(바이올린)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010-6432-0821

지난 2002년 대학교수, 의사, 감정평가사, 교사, 군인, 학원강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음악 동호인들로 출발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리스어로 '선율'이란 뜻을 담은 멜로소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연주, 한국공인회계사 정기총회 초청연주, 해운대 한화리조트 초청연주, 금정수요음악회, 울산 아가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야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었다.



**클레다 현악사중주단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클레다 현악사중주단 010-4568-3370

창원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탁서연과 비올리스트 신지현, 첼리스트 김유미로 구성된 클레다 현악사중주단의 7번째 정기연주회.

클레다 현악사중주단은 'Classic never dies! 클래식 식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모토로, 자극적인 전자음과 화려한 조명이 지쳐 있는 청중의 귀와 눈을 순수 음악으로 되돌리고자 모인 젊은 앙상블로, 그동안 5차례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테마의 기획연주회, 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페스티벌',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통영 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 세상 66'
카메라타 합창단과 함께하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성음악과 세속음악**

일 시 | 3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송도성당 성전
입장료 | 무료
문의 | 가톨릭센터 462-1870



클래식, 국악, 생활성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가톨릭센터 '아름다운 세상' 66번째 무대. 카메라타 합창단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15~16세기 종교음악인 '모테트'와 상송, 그리고

동시대 극작가 셰익스피어 희극 작품 속 세속 노래들을 주 레퍼토리로, 시대와 종교, 세속(성과 속)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구원과 속죄의 길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 지휘/권영욱
- 피아노, 오르간/강지원
- 카운터테너/김반석
- 류트/김영익
- 비올라 다 감바/정명숙

윤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3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윤주연 010-7308-3343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재직하던 중 독일로 유학,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윤주연 독주회.

2008년부터 Junge Muenchner Pihlharmonie 단원으로 매년 여름 'Carl Orff Musik Festival'에 참여했던 윤주연은 2009년에는 Stuttgart Pihlharmoniker에서 1년간 연수단원으로 재직하며 독일 전역을 비롯해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등 연주투어를 가진 바 있다. 귀국 후 하이트리오, 아르페트리오 리더로 활동하며 동래여성오케스트라, 진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2013년 대관령 국제음악제 참가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윤주연은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도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김영실
- 클래식기타/김경태
- 비올라/김민경
- 첼로/오현진

Innovation 1 to 5

일 시 | 3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정재원 010-9407-4686



젊은 아시아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있는 Si-Yo Music Society Foundation이 제공하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무대 'Innovation 1 to 5'. 미국 맨하탄음대(학사, 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뫼거스 뉴저지 주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맨하탄음대(학사) 및 메네스음대(석사), 뫼거스 뉴저지 주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정원, 부산대학교와 메네스음대(석사), 뫼거스 뉴저지 주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비올리스트 정재원, 이화여자대학교와 메네스음대(석사), 보스톤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첼리스트 서지원, 맨하탄음대 학사과정을 3년 조기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피아니스트 박소연 등 5명의 연주자들이 솔로 및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Play 연극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1월 5일(목)-3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8:30, 일 ·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5년 개봉 당시 230만 관객을 동원한 동명의 영화를 무대에 올린 연극 '작업의 정석'.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극으로 자리 잡은 연극 '작업의 정석'은 연애 고수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연극 '쌈이 필요해'

일 시 | 1월 6일(금)-3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한 2030 삼포세대들이 꿈꾸는 현실 로맨틱 코미디극 '쌈이 필요해'.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는 프리한 생활을 즐기고 사는 35세 언론사 연애부 취재팀장 이선균과 그 앞에 나타난 새파랗게 어린 4차원 인터넷 이나영, 찰나고 똑똑해서 인티도 많지만 알고 보면 허술한 그녀, 35세 편집장 김정화, 그리고 연애가 설레지 않는 연애고자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신입기자 김석원 등 같은 직장 네 남녀의 좌충우돌 연애기가 현실적으로 펼쳐진다.

- 작/이민혁
- 연출/이규민

연극 '행오버:게임의 시작'

일 시 | 2월 2일(목)-4월 2일(일) 평일 오후 5:00, 7:30, 주말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철하는 결혼 1주년 기념 이벤트를 하기 위해 호텔 506호로 아내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납치를 하게 된다.

이벤트 성공을 자축하며 술을 마시던 철하는 다음날 506호가 아닌, 507호에서 깨어나게 되고 갑작스러운 아내의 부고를 듣게 된다. 507호에는 철희 뿐 아니라 휴식을 위해 호텔을 찾은 게이바 사장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호텔을 찾은 스트립댄서도 함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전날 모두 술을 먹고 잠들었고, 깨어나 보니 자신의 방이 아닌 507호라는 것. 그렇게 철희 아내의 죽음과 수상한 사람들 속에서 속고 속이는 게임이 시작되는데...

추리와 코미디를 결합한 연극 '행오버:게임의 시작'은 탄탄한 구성과 함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 공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한결아트홀 새봄다봄 연극전 황혼

일 시 | 3월 1일 수요일 오후 3:00, 2-3일 목-금요일 오후 8:00, 4일 토요일 오후 3:00, 5일 일요일 오후 4: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문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실험적 언어의 천재적 미술사관 칭호를 받고 있는 현대 오스트리아 극작가 베테 투리니의 '알프스의 황혼'을 무대에 올린 연극 '황혼'.

알프스의 관광객을 상대로 산신송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70대의 명인에게 볼품 없는 50대 청년이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연극 '황혼'은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살아온 황혼의 남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조각을 서로에게 꺼내 보이며 인생 끝자락의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연극, 영화를 중후무진 활약하며 명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명계남과 연희단거리매 대표 김소희가 도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노년의 사랑을 펼친다.

- 연출/채윤일
- 출연/명계남, 김소희, 안윤철, 노심동

극단 사계 제78회 정기공연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일 시 | 3월 2일(목)~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극단 사계 1600-1602, 010-7110-8518



25년 전 집을 나간 한 남자를 뒤로 하고 그의 아내와 딸, 옛 애인인 세 여자가 함께 살아간다. 25년 세월은 과거의 앙금을 사라지게 하고 세 사람은 여자들만의 묘한 우정을 쌓고 살아간다. 그러던 중 그녀들 앞에 다시 나타난 남편이자 애인이자 아버지, 그녀들은 다시 통닭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통닭가게를 매개로 서민들의 애환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는 25년 전 한 남자가 집을 떠나면서 남겨진 세 여자의 소박한 일상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작/강병현 • 연출/김만중
- 예술감독/허영길
- 출연/허승연, 박창화, 박정은, 장현수, 김상호, 양은미

국민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 3월 9일(목)~5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IN시어터**

입장료 | 전석 3만원(3/8일까지 예매 시 1만8천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1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쿠니의 작품으로, 지난 1998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국내 최장기 오픈런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는 '라이어'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라이어 튀어!'.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서류가방과 100억원이 든 야쿠자의 가방이 뒤바뀐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 상황 속에서 영호를 의심하는 형사들이 찾아오고 이들을 따돌리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데...

야쿠자의 돈가방과 자신의 서류가방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평범한 남자의 하루 동안의 해프닝을 그린 '라이어 튀어!'는 잠시도 눈을 떼 수 없는 긴박한 전개와 잘 짜인 연출, 모두가 놀랄만한 반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결아트홀 새봄다봄 연극전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운동주,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

일 시 | 3월 9일(목)~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올해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5년 초연된 창작뮤지컬 '서시를 새롭게 각색, 전국 초연무대로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일본인 간호사 요코는 새로운 마루타 병실에 배치되고 거기서 마루타 동주가 번역하다만 원고를 발견한다. 동주는 요코가 주입하는 바닷물에 서서히 피가 묻어지면서 환각을 보게 되고, 요코는 동주의 미발표 원고를 읽으면서 그의 환각에 빠져든다. 운동주의 육신은 바닷물에 채워지지만 그의 '하늘을 우려한 점 부끄럼이 없는' 영혼은 요코에게 전이된다. 운동주의 꿈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살아남은 가해자 요코는 동주의 참화를 자기 삶으로 깨닫는다.

시인 운동주가 해수 투입 생체실험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추적한 창작뮤지컬 '운동주,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는 아민적 역사에 희생된 개인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 작, 연출/이재경

극단 맥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3탄

너도먹고 물러나라

일 시 | 3월 9일(목)~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소극장 6번출구**

입장료 | 전석 2만 5천원

문 의 | 극단 맥 625-2117



지난 1986년 창단 후 전통연희 양식을 통해 향토성 짙은 지역 창작극을 무대에 올려온 극단 맥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기념공연 세 번째 무대 '너도먹고 물러나라'. 극이 시작되면 주인공 모조리네가 장님 박판수의 집에 점을 치러 간다. 나

이 많은 졸부의 후처로 들어간 모조리네는 영감이 죽은 다음에 겪게 될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듣고자 하고 정확한 점괘를 위해 박판수에게 과거사를 모두 이야기한다. 모조리네로부터 과거 아이를 낳아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박판수는 아이를 위한 진혼굿을 진행하는데...

- 작/윤대성 •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허정현
- 드라마투르기/김민수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0주년 특별기획

뮤지컬 갈라쇼-부산

일 시 |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석 4만원, R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뮤지컬 갈라쇼'.

지난 1989년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로 데뷔한 후 그동안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상, 인기스타상, 여우주연상을 비롯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2016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어워즈 최고의 스타상 등을 수상한 국내 최고의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1996년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로 데뷔한 후 그동안 뮤지컬 '아이다', '렌트', '맘미미아', '미스사이공', '잭더리퍼', '삼총사', '투란도트' 등 수많은 작품에서 출연하며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견명, 부산의 대표적 창작뮤지컬 단체 아트레볼루션(대표, 연출/박정우)이 출연, 뮤지컬 '사카고',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지킬 앤 하이드', '노트럼 드 파리', '그날들', '맘미미아' 등 유명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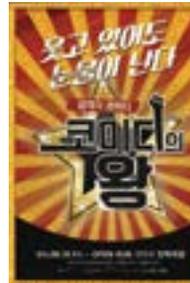
연극 '코미디의 왕'

일 시 | 3월 10일(금)~4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축제스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팀플레이예술기획㈜ 1661-6981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후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소를 하게 된 어느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코미디의 왕'.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등 사랑하는 이에 대한 사랑,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던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옆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코미디의 왕'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관객들에게 웃음을 줘야 하는 주인공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한 편의 코미디 쇼를 연상시키는 듯한 다양한 코미디 연기와 직접 전문가에서 배우 미임, 마술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로 관객들과 만난다.

- 작, 연출/정세혁
- 출연/정진혁, 이원선, 임기정, 김수정, 손소라, 이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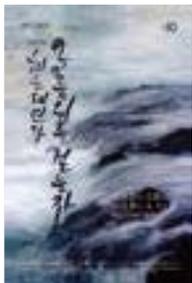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0주년 특별기획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일 시 | 3월 23일(목)~25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29일(수)~4월 1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석 4만원, R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만의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해운대문화회관이 제작, 지난해 11월 초연무대를 가진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는 '해운대'라는 지명을 최초로 썼다고 알려진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삶과 그 시대를 다룬 작품으로, 극단 아트레블 루선 박정우 대표가 극작과 연출을 맡는 등 출연진은 물론 무대, 의상까지 부산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엘메이드 부산 뮤지컬'로 당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총감독/김성모 • 작, 연출/박정우
- 음악감독, 지휘/천정훈 • 작곡/이진실, 박정우
- 출연/한규정(최치원), 김효영, 왕시명(위홍), 김경원, 허은미(진성여왕), 이내영, 최소영(부호부인), 선승일, 박준성(예겸), 김정호(최운), 채민수(최언위)

연극 '옥탑방 고양이'

일 시 | 3월 23일(목)~5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3년 정다빈, 김래원 주연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옥탑방 고양이'.

작가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영동한 시골어자인 정은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차가운 도시 남자인 경민이 옥탑방으로 동시에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달콤한 러브 스토리와 함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2010년 초연무대 이후 6연 연속 연극 예매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원작/김유리
- 작/박은혜
- 연출/김태형, 정세혁, 이지영

뮤지컬 '보디가드'

일 시 | 4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WSM 1566-5490



세계적인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이 뮤지컬로 되살아난 뮤지컬 '보디가드' 부산공연.

지난 1992년 개봉 당시 전 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2위, 전 세계 역대 영화 사운드트랙 판매 1위, 그레미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한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보디가드'는 2012년 5월, 웨스트 엔드에서 성공적인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 영국, 아일랜드, 독일, 모나코, 네덜란드 등 세계 전역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시아 최초 한국에서 역사적 초연무대를 가진 '보디가드'는 한계없는 음역대의 짜릿한 고음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완벽하게 선보일 레이첼 마룬 역의 정선아, 이은진(양파), 손승연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경호원 프랭크 파머 역의 이종혁이 출연, 영화의 감동을 뛰어넘는 무대를 선사한다.

Event 행사

김옥균의 힐링클래식 음악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향강의실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부산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감상회.

|프로그램|

2일 봄의 향기/비발디 '세계' 중 '봄', 요한 스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그리고 '아침기분', 엘가 '사랑의 인사'
9일 봄의 미소/슈만 교향곡 제1번 '봄',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16일 상쾌 유쾌 명쾌 교향곡/베토벤 '교향곡 8번', 드 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23일 요절복통 개그클래식 콘서트/대니 케이 (Danny Kaye)의 뉴욕필 이브닝 쇼
30일 아르헨티나음악의 열정/탱고 춤의 모든 것 '피아졸라, 가르델, 마피아, 라우렌스'

수영구와 함께하는 제22회 갈매기환송제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광안리해변(할리스커피 앞 백사장)

문의 | 갈매기친구들

010-3827-2005, 010-2774-3455

...

해마다 가을에 부산에 왔다 3월경 배랑해, 캄차카만도 등으로 돌아가는 갈매기들을 환송하는 갈매기환송제.

갈매기 보호단체인 '갈매기친구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제3회 갈매기음악제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3월 아카데미

일 시 | 3월 9일(목), 13일(월), 16일(목), 20일(월), 23일(목), 27일(월), 30일(목)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

6일(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마르크스에게 해법을 묻다

- 강사/강신준(동아대학교 교수) 13일(월) 내가 사랑하는 예술가(1) 'Caravaggio(카라바조)' -영화 '카라바조'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북캘러리 내사재 대표) 16(목) 어린이의 눈으로 본 부조리, 그 극복 -영화 '앵무새 죽이기'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0(월) 4명의 보컬리스트와 함께하는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 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23일(목) 영화, 철학을 캐스팅하다
- 강사/이왕주(부산대학교 교수) 27일(월) 박창호의 인문학 특강(1) '사상의학의 우주론적 토대 음악오행론'
- 강사/박창호(고음악평론가·철학박사·갤러리카 페나다대표) 30일(목)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 강사/진경옥(동명대학교 교수)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무지크바움 5주년 기념음악회
Flute, Fall in JAZZ : 플루트 재즈에 빠지다

일 시 | 3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개관 5주년 기념으로 마련하는 살롱음악회.
플루티스트 장예지가 피아니스트 진승민, 베이스스트 정준용, 드러머 박아론과 함께 프랑스 크로스오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로드 볼랑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전곡을 비롯해 조지 거슈윈 '썸머타임', 에를라르너 '미스티' 등 다양한 재즈곡을 들려준다.
•연주/ 장예지(플루트), 진승민(피아노), 정준용(더블 베이스), 박아론(드럼)
•해설/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6강
19세기 음악과 천재 슈베르트**

일 시 | 3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이번 강좌에서는 역사주의(Historicism), 비더마이어 음악(Biedermeier), 민족주의 음악(Nationalism), 사실주의 음악(Realismus), 인상주의 음악 등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이 탄생되었던 19세기 음악과 함께 특히 이 시대를 열었던 천재 작곡가 슈베르트의 삶과 그의 작품세계가 펼쳐진다.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렉처콘서트)

일 시 | 3월 15일(수)-6월 14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 13주 20만원
문 의 | 최정욱 010-3853-6634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인문학적 해설을 시도하는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

[프로그램]

- 3월 15일 켈틱음악-슬픔이 아로새겨진 신비로운 아일랜드 음악
 - 3월 22일 롬베티카(Rembetika)-그리스 음악, 조르바의 외침
 - 3월 29일 쿠버음악-세계 리듬의 보고, 뷔엔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나라
 - 4월 5일 상송-음악사(吟遊詩歌) 상송을 읊다
 - 4월 12일 집시음악과 플라멩고-유랑민족의 열정과 절규
 - 4월 19일 멕시코 음악-마리아치의 낭만, 볼레로의 나라
 - 4월 26일 The Soul of Africa
 - 5월 10일 보사노바 & 탱고
 - 5월 17일 레게 & 안데스 음악
 - 5월 24일 칸초네-나폴리의 벨칸토 선율
 - 5월 31일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on)
 - 6월 7일 파두 & 모르나
 - 6월 14일 Jazz, Jazz, Jazz-자유로운 영혼의 울림
- 기획, 해설/예필 최정욱

제11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일 시 | 3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서면 신세계안과 5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지난 10년간 시낭송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가 주최하는 115번째 시낭송회로, '봄'을 주제로 하는 시낭송과 축하음악회로 꾸며진다.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일 시 |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28

30여년 정통음악 DJ로 있으며,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 음악프로그램 '도병찬의 뮤직파일'을 진행했던 전 KBS 라디오 프로듀서 도병찬의 진행으로 마련되는 '도병찬의 뮤직파일'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아날로그 감성을 되새길 수 있는 각종 영화음악과 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만의 우수한 입담과 맛깔스러운 진행으로 감상할 수 있다.

Display 전시

백만승展

일 시 | 3월 2일(목)-3월 31일(금)
BNK부산은행 서면롯데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임현주展

일 시 | 3월 2일(목)-3월 31일(금)
BNK부산은행 제니스파크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볼드 팩토리'展

일 시 | 3월 8일(수)-3월 26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1

The color of sea-바다의 색

일 시 | 3월 11일(토)-3월 19일(일)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2017 '春-美'展**

일 시 | 3월 14일(화)-3월 31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손 끝에서 핀 꽃, 3인 3색

일 시 | 3월 17일(금)-3월 31일(금)
BNK부산은행 범내골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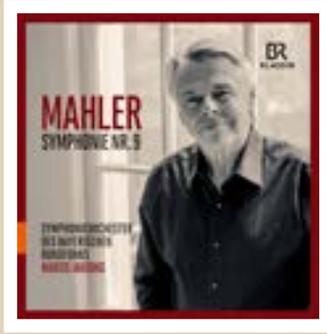
울속도문화회관 기획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17

일 시 | 3월 20일(월)-4월 2일(일) 갤러리 울속도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22

울속도문화회관이 젊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부산을 사랑하는 젊은작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 20명의 작품 전시.





말러 '교향곡 9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연주), 마리스 안손스(지휘)

▶조락(凋落)하는 풍경 너머 '영원'을 향해 있는 말러의 시선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실황이 드디어 음반으로 출시되었다. '영원(ewig)'의 공명이 물결치는 1악장 초반부에서부터 신랄하고 리드미컬하게 비틀거리는 죽음의 춤사위(2악장과 3악장), 모든 것들과의 이별이 담긴 4악장에 이르기까지 안손스는 차분히 그리고 충실하게 말러의 메시지를 읊고 있다. 특히, 4악장은 이전의 유명한 명반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조락(凋落)하는 풍경을 들고 서서 여전히 이별을 주저하고 있지만, 그 너머의 재생과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말러의 마지막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반드시 들어봐야 할 음반이다. (2016년 10월 20-21일, 뮌헨 가스타익 필하모니 실황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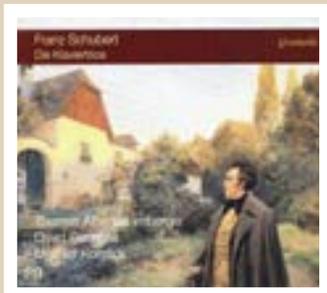


바흐 'b단조 미사, BWV 232'

크리스티나 란트샤머(소프라노), 안케 폰둥(메조소프라노), 케네스 타버(테너), 안드레아스 볼프(바리톤),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합창), 콘체르토 쾰른(연주), 페터 디스트라(지휘)

▶바흐 음악의 위대한 결정체를 조탁하는 디스트라의 손길, 또 하나의 수작!

지휘자 피터 디스트라와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의 음악 여정은 화제의 '미태 수난곡'에 이어 이제 바흐 'b단조 미사'에 도달했다. 디스트라는 예전에 세이지 오자와와 사이토 카넌 오케스트라의 음반(Philips 468363, 2002)에서 코러스 마스터로 참여했는데, 이번 음반에서는 자신의 손길로 직접 바흐 음악의 위대한 결정체를 조탁(彫琢)하고 있다. 콘체르토 쾰른의 유려한 연주, 합창단과 성악진의 싱그러운 목소리에 묻어오는 오롯함, 입체적이고 명징한 음색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만족스럽다. 또 하나의 수작이 탄생했다.



슈베르트 '피아노 삼중주 1~2번, 노투르노, 소나타악장'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다비드 게링가스(첼로), 미하엘 코어슈티크(피아노)

▶최상의 앙상블과 최고의 거장이 만드는 완벽한 균형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이른베르거가 슈베르트의 사랑스러운 두 곡의 피아노 삼중주곡을 녹음했다. 이 곡들은 슈베르트의 만년 작품으로 1번은 40분, 2번은 무려 50분이 넘게 소요되는 거대한 규모의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실내악을 위한 교향곡이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음향과 조직적인 구성력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이른베르거의 연주에는 청년 슈베르트의 열정이 담겨있으며, 코어슈티크와의 앙상블은 이미 적지 않은 음반을 통해 최상의 하모니임을 입증했다. 또한 첼로의 거장 게링가스가 합류하여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BOOK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 재미있는 국악지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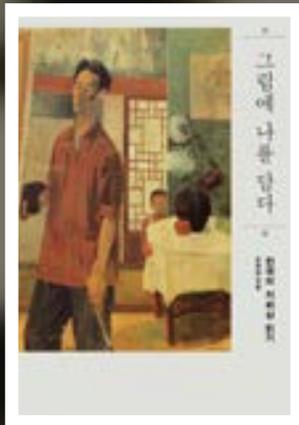
홍희철 지음 / 새로운사람들 / 223p / 1만5천원



국악곡을 지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최초의 국악지휘 입문서이다. 특히 성가대 지휘자나 국악관현악 지휘입문자에게 참고자료로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국악장단에 의한 비팅을 할 경우, 단순히 서양식으로 비팅해서는 국악의 깊은 맛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악장단과 구음을 익힌 후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서양 지휘의 차이점과 국악지휘의 역사 등을 다양한 사진과 도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으며, 연주 때 지휘자와 단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루고 있다. 평범할 것 같은 관객은 사실은 예리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연주에서 지휘자와 단원들은 각별히 긴장하면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휘자 한사람으로 인해 단원들이 지칠 수도, 행복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국악관현악에서의 특성에 맞게 악기들을 소개한 것이 다른 국악 저서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저자가 추천하는 국악관현악 30곡도 찾아서 들고 있다.

❖ 그림에 나를 담다

이광표 지음 / 현암사 / 332p / 1만8천원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개해온 이광표 기자가 한국의 자화상이 보여주는 시대적 의미와 흐름을 고찰한 책을 펴냈다.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50년대 초까지 화가들이 그린 자화상을 탐구하고 깊은 안목으로 그림 안팎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와 동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 입사해 지금까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개하는 글을 주로 써왔다.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로 부를 정도로 조선 시대에는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그러나 자화상은 매우 드물었다.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묘사력이 뛰어나야 해서 보통의 선비, 문인, 사대부 화가들은 자화상을 쉽게 그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화원이나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림에 담을 정도로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지위, 화가의 자의식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근대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화상도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자화상의 철학적·미학적 개념과 한국 자화상의 시대적 변화흐름 및 특징이 무엇인지, 한국 자화상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 사임당전

정옥자 지음 / 민음사 / 420p / 2만2천원



5만원권 지폐의 초상으로 쓸 정도로 사임당은 조선시대 여성 중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사임당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한다. 이 책은 부단한 자기 생 속에 예술을 꽃피운 사임당을 다시 살려낸다. 100여 점의 작품으로 들여다본 사임당의 삶과 예술이다. 사임당은 여유로운 안방마님으로서 7남매를 교육하고, 귀족의 호사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니다. 사임당의 예술 세계는 시와 글씨, 그림과 자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작품은 그림이다. 사임당은 결혼 이후 살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수를 놓았고, 자수를 위한 수본으로 그림을 그렸다. 사임당에게 예술 활동은 생활비를 버는 생활의 방편이자 고단했던 삶의 한 줄기 위안이었던 것이다. 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것 대다수가 '초충도'인 까닭은 당시 규중의 아낙네들이 선호하여 안방에 걸어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책은 후세 사람들에게 의해 사임당에게 덧씌워진 여러 이미지에 대한 논란은 접어 두고 사임당의 실제 삶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사임당이 실제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일생을 알아보고 사임당이 남긴 작품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책이다.



NEWS

전문성과 새로움으로 무장한 2017년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2017년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보다 차별화된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의 2017년도 2분기 강좌가 4월 3일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총 11개 강좌 16개반이 개설되는 이번 문화예술아카데미는 클라리넷, 가야금, 해금, 클래식기타, 사물놀이 등 기존 5개 강좌에 바이올린, 플루트, 한국춤 등 3개 강좌가 더 신설되는 한편, 실기 강좌 외에도 사진, 미술 등 인문학 강좌를 새롭게 개설, 강좌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부산시립무용단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면서 아마추어 무용인들을 다수 배출한 우리춤 강습 '풍류(風流)'는 이번 강좌부터 '원향지무', '산조춤' 등 2개의 한국춤 강좌로 편입되고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강습시간이 낮 시간대에서 저녁시간대로 옮겨진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인문학 강좌는 평일에 시간내기 힘든 학생과 직장인들을 배려, 주말강좌로 신설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실기강좌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강사로 포진된 실기강좌는 그동안 여타 강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전문연주자들의 차별화된 강좌로 인기가 많았다. 2분기 강좌에서는 그동안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바이올린, 플루트, 한국춤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월요일 바이올린, 화요일 가야금과 한국춤, 수요일 클라리넷, 목요일 해금과 사물놀이, 금요일 클래식기타 등 요일별로 다른 강좌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롭게 만나는 특별한 인문학 강좌

그동안 단기강좌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던 인문학 강좌는 정규강좌로 새롭게 편성된다.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자립작가이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 중인 사진작가 뿌리야 김이 진행하는 '사진학:하이 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강의'는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미학과 비평을 첨가해 사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꿈꾼다.

2015년 예술의전당 갤러리토르크를 진행한 예술학 박사이자 미술비평가 장원은 '아티스틱 판타스틱 미술사'라는 강좌를 통해 모두가 알만한 미술사 속 거장들의 예술세계와 그들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이 두 강좌는 개강 전인 3월 4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하이라이트 특강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다.

3월 13일(월)부터 접수, 선착순 마감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오는 4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3월 13일부터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수강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607-6061~3, www.bscc.or.kr)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정기회원 단체 가입



2014년부터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하면서 병원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공연관람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직원복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 가족들에게 공연정보를 제공하며 공연관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원장/이재일)이 병원 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평소에 그랜드 자연 정기음악회를 비롯해 야외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지난

정기회원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나라 최초로 부산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갖는 백조드 압드라이모프는 전설적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를 떠올리는 젊은 거장으로, 강렬한 타건과 화려한 기교로 '현재 가장 주목해야할 젊은 연주자'로 지목되면서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이다.

2017년 재단출범과 함께 새롭게 바뀐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신규가입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3월 1일부터 열흘간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 스페셜회원에 가입하면 선착순 각각 50명, 100명에 한해 3월 22일 열리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백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초대권(VIP회원 2매, 스페셜회원 1매)을 제공한다.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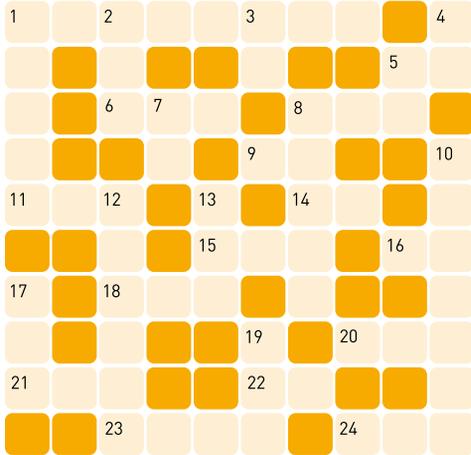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특히 올해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기존 회원제도보다도 더 많은 할인매수와 높은 할인율,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 제공되는 초대권(4매)으로 예약 가능한 기획공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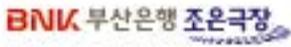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5)

- 3월 22일(수) 백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 4월 21일(금)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 초청공연
- 5월 20일(토)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초청공연
- 6월 30일(금)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8월 8일(화)~9일(수)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 발레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재난호 정답

발 렌 타 인 데 이 상 량 식
 레 산 상 의 원 해
 뮤지컬 한 사 도
 문 석 소 나 타 라 불
 화 개 진 라 지
 재 혼 천 의 조 타 수
 청 산 별 곡 엘 령
 주 바 리 스타 방
 사 대 부 스 히 치 곡
 기 전 국 구 이 티

가로열쇠

- 2017년 1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부산문화재단이 그동안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사랑받아온 '해설이 있는 엘빙콘서트'를 시리즈한 무대, '음악계의 괴물'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은범의 해설로 3월 24일 '베르디'를 시작으로 바그너(4월 28일), 푸치니(5월 31일), R. 슈트라우스(6월 30일) 등 오페라 이야기로 꾸며진다.
- 두 줄로 된 한국의 전통 칠현악기. 원래 중국에서 당·송나라 이후 속악(俗樂)에 쓰이던 것이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향악에 사용되어 왔다. 속칭 깡깡이, 깡깡이라고도 한다.
- 인근 물문대(浚霧臺)와 함께 주변 바다와 산의 경치가 아름다운데다가 곱고 부드러운 흰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사거리에서 해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문화예술의 거리. 지금은 신림동으로 이전한 서울대학교가 과거 이 곳에 자리하고 있어 ○○○라 이름불려졌다.
- 색색으로 이어 만든 것. 일반적으로 오색 빛깔의 향감을 충이 지게 차례로 잇대어 만든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매감을 말한다.
-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여행자의 국적,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이다.
- 미국의 음악가이자 색소폰 연주자. 지난 1990년대 중반, 그의 대표적인 연주곡인 'Going home'이 CF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과 동맹을 맺어 연합군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도는 방콕.
- 영국의 영화감독 겸 각본가.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레이닝 스톤', '빵과 장미' 등 노동 계급, 빈민, 노숙자 등의 주제를 사실적으로 그린 사회적 사실주의 영화를 다수 제작했다. 지난해 제69회 칸영화제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 파도 소리 또는 물결이 밀려들거나 밀려가는 소리.
- 1912년 델리로 수도가 옮겨질 때까지 인도의 수도였던 인도 동부 사벵골 주(州)의 주도. 지난 1995년 전통명칭이었던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했으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컬커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 소설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 소설 주인공으로, 밀림의 모험을 다룬 30여 편의 소설과 수십 편의 영화에 등장했다.
- 동화작가 안테르센의 세 번째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으로 그 자신이 가장 감동적인 동화라고 여기는 작품. 육지의 왕자를 만나기 위해 마녀에게 자신의 영혼까지 저당 잡히지만,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의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세로열쇠

- 끈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사극 또는 실이나 끈을 달아 위에서 조종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형들의 총칭.
- 197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시인. 영화 '일 포스타노'는 그와 작은 어촌 마을의 우편배달부가 이끄는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 객실 단위로 분양을 하여 구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관리 회사에 운영권을 맡기고 임대료 수입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호텔. 콘도미니엄의 줄임말.
- 원래는 서양의 오르간(organ)이라는 악기의 한자식 번역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중에서도 리드 오르간(reed organ)을 일반적으로 ○○이라고 한다.
-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며 늙음.
- 저 또는 적대라고도 하며 한자로 적(箭)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악기를 가로로 비껴고도 한쪽 끝부분에 있는 취구에 입술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가로로 부는 대표적인 국악기이다.
- 조선 후기 김정호가 27년간 전국을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 만든 분점철학시 우리나라 전국지도. 보물 제850호.
- 지난 2000년 통영문화재단과 국제음악협회가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한 '통영현대음악제'로 시작된 후 2002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음악제. 2017년 올해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음악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 영국 소설가 메리 셸리가 1818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실제하는 사물을 보고 모양을 간추려서 그린 그림. 사생(寫生).
- 연극이나 음악회 등의 공연에서, 관객들이 찬사의 표시로 환성과 박수를 보내어 공연이 끝나 무대에서 퇴장한 출연자를 무대의 막 안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일.
-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 따라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화면.

2월호 퍼즐 당첨자

엘로인플라워 이정원(남구 유엔로)
 최현주(동래구 복천로)

조은극장 김상대(서구 초창로)
 고수진(동구 중앙대로)
 박경원(영도구 영마루길)
 이옥출(사하구 하신중앙로)
 허윤희(부산진구 초읍천로)

공간소극장 김은정(동래구 총렬대로)
 박복규(해운대구 대천로)
 박소미(해운대구 해운대로)
 여혜정(동래구 사직로)
 이신옥(연제구 안연로)

큰집식사권 김대원(영도구 태종로)
 박선우(북구 효열로)
 손혜진(동래구 쇠미로)
 최진섭(남구 수영로)
 한수경(연제구 법원북로)

2017년도 하반기 (재)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극장(대관담당)

☎ 051-607-6058

(재)부산문화회관 전시실(대관담당)

☎ 051-607-6063

• 대상 : 극장(대/중/셈버홀), 대전시실

※ 소극장(어린이전용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대관기간 : 2017. 7. 1(토) ~ 12. 31(일) (6개월)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팝업 참조

• 접수기간 : 2017. 3. 3(금) ~ 3. 17(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대관신청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극장 hssi12@naver.com / 전시실 gjh1834@naver.com

• 결과통보 : 3월 말 ~ 4월 초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불허 통보

• 대관심의 우선기준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 대관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용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공연상세내용, 공연참고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공연계획서가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3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 금 : 공연 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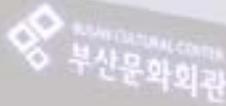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관접수 일정은 (재)부산문화회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대관서비스>를 참조바랍니다.

★ 당초 공지되었던대로 2017년 7월 1일부터는 변경된 (재)부산문화회관의 내규, 규정으로 운영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무용단/극단)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종류 및 특별혜택



VIP회원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 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시 제공)



스페셜회원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시 제공)



예술단회원 |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무용단/극단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 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시 제공)
 ※ 비가입단체 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 단체가입 할인 : 20명이상(10%), 30명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가입기간(1년)
 정기회원 카드 발급(7일)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예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 제공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된 공연에 한함)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첨, 여행일정 변경될 수 있음)
 무료주차권(유료 시행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75)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문신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75)
수령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주의사항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입장권 예약 후 가상계좌(기간내 입금) 미입금 시 예매 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5 FAX. 051-607-6079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아이디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자 택		
		직 장		
E-mail				
가입구분	VIP회원	<input type="checkbox"/>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 6매(공연당)		
	스페셜회원	<input type="checkbox"/>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예술단공연) 증정, 할인 4매(공연당)		
	예술단회원	<input type="checkbox"/>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input type="checkbox"/> 국악관현악단 <input type="checkbox"/>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input type="checkbox"/> 무용단 <input type="checkbox"/> 극단 <input type="checkbox"/>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예술단공연) 증정, 할인 2매(공연당)		

*단체가입 할인 : 20명이상(10%), 30명이상(20%), 50명 이상(30%)

벅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PIANO RECITAL

BEHZOD ABDURAIMOV



2017. 3. 22(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eethoven '열정' | Prokofiev 소나타 6번 | Schubert '악흥의 순간' | Bach & Busoni

주최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07-6000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지휘 김봉미



마티네

조운범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



소프라노 김성은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김지호



테너 신동원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Program

베르디

G. Verdi

오페라 <아이다>

Aida

개성행진곡

March Triumfale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Il Trovatore

타오르는 저 불길을 보라

Di questo fire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D'amore colli l'al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이상해

Il Maledetto

그녀 없이는 행복도 없다

Senza di lei

파리를 떠나서

Partir de Paris

오페라 <리골레토>

Rigoletto

그리운 이름이여

Caro Nome

여자의 마음

La Donna E Mobile

그가 훌륭한 분이 아니었으면

Signor mio padrone

2017.3.24(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EVENT

- 추첨을 통해 10분에 신세계 면세점 Gift Card를 드립니다.
- 신청수 500분에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 김봉미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

SYMPHONY No.5



지휘 김봉미



트럼펫 안희찬



소프라노 후희명



테너 김승희

PROGRAM

베르디 |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G. Verdi Opera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

아르방 | "베니스 축제"
J. B. Arban The Carnival of Venice Fantasy and Variations

비제 | 오페라 <카르멘> 中
G. Bizet Opera <Carmen>

베토벤 | 교향곡 No.5 "운명"
L.v. Beethoven Symphony No.5 "Fate"

2017.4.5(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문의 607-3117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권 균일 2,000원

서비스 운영(무비)  출발지: 대면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짜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 - 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지휘 마누엘 로페스-고메스
Manuel Lopez-Gomez

MANFRED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7회 정기연주회

Program

베르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61
L.v. Beethoven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61

차이코프스키 | 만프레드 교향곡 나단조 작품58
P.I. Tchaikovsky | Manfred Symphony in b minor op.58

바이올린 정준수



2017. 3. 31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www.bsoc.or.kr
☎ 서비스 운영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문의 607-3111~3113(2층악단), 6075(정기회관)

• 출발지: 대안역 2번 출구 유원교로 방향 100m "번개 피라"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8:00 (공연하는 날에 한정)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예체능동호회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 ▶ 전화문의

어린이 예술교육체험 압도적 1위 !!!
관객 만족도 9.7 ★★★★★

박진아의

모래개라 빅이랑

모래와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최고

- 일 시 : 2017. 07. 07(금) ~ 08. 27(일) ※월요일 휴관
- 장 소 : (재)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 체험회차 : 평일 13:30 / 14:30 / 15:30 / 16:30 ※평일오전은 단체예약에 한함
주말 및 공휴일 10:30 / 11:10 / 11:50 / 13:30 / 14:30 / 15:30 / 16:30
- 입장연령 :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 예 매 : 인터파크 / 티몬 / 쿠팡
- 문 의 : 1899-8418
- 주 최 : (재)부산문화회관, 공감플러스프리덕션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개최

제23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대회일시 2017.3.25(토) 성악·중창 **접수** 2017.2.1~3.20(월)까지
2017.4.01(토) 피아노·작곡·국악 **접수** 2017.2.1~3.27(월)까지
2017.4.08(토) 현악·관악·실내악 **접수** 2017.2.1~4.03(월)까지

장 소 글로벌아트홀
대 상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접 수 처 콘테스트 (www.contest.co.kr)
일 정 표 접수마감 후 수요일 글로벌홈페이지 (www.glovil.org) & 카카오톡에 공지
과 제 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심 사 한국 최고의 전공별 음악교수님 및 연주자로 구성됨
(글로벌콩쿨은 저명한 음대교수님들이 명문콩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가 비 개인 10만원 (유초등부 8만원) / 중창 및 실내악 1인당 5만원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벌아트홀
(참가자이름으로 입금, 참가비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 상 전체대상 (부산광역시장상) / 특별상 (동래구청장상)
부문별최우수상 (10명 내외) / 교육공로상·우수지도상
금상·은상·동상·장려상 (각 부문별/학년별 절대평가로 채점)

수상자 특전

전체대상 부산광역시장상, 상금 200만원(본인 100만원, 지도자 100만원)
부상 : 개인연주회개최 (100만원 상당) 무상제공
최우수입상자 축하음악회에서 선발

최우수상 최우수입상자 축하음악회 (2017.4.29(토) 오후 4시, 참가비 면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출연), 공연실황을 HD급 디지털 고음질
고화질로 녹음 녹화하여 디지털 앨범 발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가능하여 유학 및 국제콩쿨오디션용으로 활용, 총제작비 500만원)
글로벌아트홀 대관 (30%) 할인권 제공

금상 / 은상 신에음악회 (2017.5.27(토) 오후 3시, 소정의 참가비와 신청서제출자에 한해 출연)

동상 / 장려상 상장수여, 글로벌예술단 오디션 면제

교육공로상 최우수상을 배출한 지도자에게 수여

우수지도자특전 5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한 지도자에게 우수지도비 지급
교육공로상, 우수지도자가 글로벌아트홀 대관 시 50%대관할인권
(1년 이내 사용 시)

수상실적증명서 발급 대학입시용 및 예술단 입단용 수상실적증명서 발급
(이메일로 신청, 시상식 이후 발급)

주최  GloVil Art Hall 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문의 글로빌 아트홀 051-505-5995 홈페이지 www.glovil.org 이메일 glovil.daum.net
478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온천3동)

 글로빌아트홀

2017 | The Russian State TV & RADIO Music Centre Academic Grand Choir
'Masters of Choral Singing'

러시아국립 볼쇼이 합창단 내한공연



지휘 레프 칸타로비치 소프라노 세라피야 콘야쉬나 테너 안드레이 바쉬코프 메조소프라노 올리나 바카노바 바리톤 드미트리 쿠즈넛소프

2017년 4. 21 (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 티켓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10,000원

☎ 무료 셔틀버스 운행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월~금 19:00 (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2017. 4. 8(토) PM 05:00

6.10(토) PM 05:00

9.30(토) PM 05:00

11.11(토) PM 0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클래식, 철학을 듣다.

喜怒哀樂

예술감독 오충근 특별출연 최진석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히로애락



모두가 누리는 생활 속에
화승의 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물론 신발ODM과 무역,
화학과 소재의 미래산업까지-
화승의 기술은 항상 당신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화승은 분야를 넘어, 세계를 넘어
세계의 화승으로 한번 더 크게 도약합니다.

사람과 기술을 잇는 글로벌-화승



- 자동차부품


- 소재


- 화학


- 신발ODM


- 종합무역

